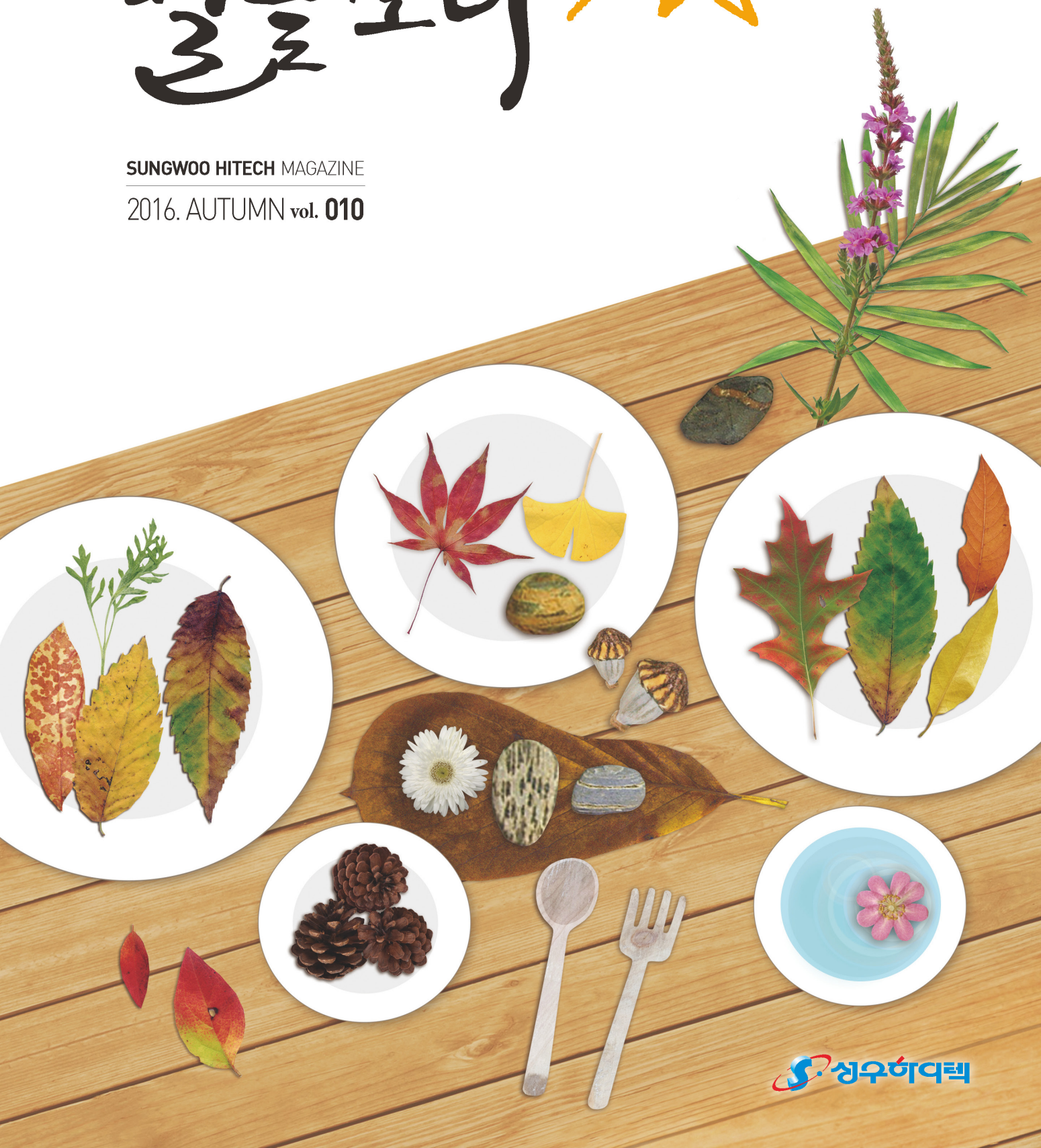


별을 쏘다 ☆

SUNGWOO HITECH MAGAZINE

2016. AUTUMN vol. 010





산자락을 기어오르는 가을이
가쁜 숨을 몰아섭니다.
눈앞에 아스라이 펼쳐진 풍경이
마음을 온통 흔들어 놓듯
우리의 추억이 담긴 사진을
눈에 새깁니다.
갈피마다 눈부신 이야기가
벽차도록 밀려옵니다.

CONTENTS



Cover Story
가을을 담은 밥상을 즐겨봅시다.

04 Issue & News

10 Ready, Action

소통과 배움을 함께하는
성우의 강태공들

14 Field Sketch

탁구로 한·중 우의의 다리를 놓은
창주성우기차부견유한공사

18 Social Contribution

따끈따끈한
일일호프가 왔어요

22 Education

새로운 출발.
값진 결실을 기대하다

24 Challenge Sungwoo

너도나도 "Fantastic!"

28 Interview

거리의 인문학자, 그에게 묻는다

32 Letter Box

오늘도 보고 싶은 당신에게

36 Healing Travel

추억이 깃든 책방골목
당일치기 여행!

42 Cartoon

연말정산, 한 푼이라도 더 받자!

46 Survival Guide

지진에서 살아남기

48 Healthy Life

스트레스, 맛있게 날리자

50 Summer Memory

여름, 잘 가! 내년에 또 만나

54 Event

가로세로 낱말퀴즈

56 Notice

Quiz 정답
40주년 사료 공모

58 Sungwoo Campaign

S-Thanks,
성우인의 행복을 부탁해



스마트폰으로
성우하이텍 사가(社歌)를 만나보세요.

별을쏘다 ★

2016 AUTUMN vol. 010

발행일 | 2016년 10월 28일 (통권 제10호) 발행인 | 이명근

사보기자 | 강승호, 김도형, 김유리, 김태우, 김태훈, 남창식, 문해준, 박노실, 박은혜, 손재경,

신민환, 안상수, 이성은, 이수승, 이승욱, 정영화, 최성욱, 최수영 (가나다순)

발행처 | 성우하이텍 www.swhitech.com (인사노무팀 Tel. 070-7477-5022)

기획 및 디자인 | 미디어썬 (Tel. 051-623-1906)

중남미시장 공략의 교두보, 멕시코법인 찾는 기아자동차 협력사 회장단

기아자동차 협력사 회장단은 9월 6일(현지시간) 멕시코 누에보레온 주(州) 페스케리아 시(市)의 기아자동차 멕시코공장 준공식에 즈음하여 165만㎡(약 50만 평) 부지에 동반 진출한 부품 협력사 10여 곳 중 성우하이텍 멕시코법인을 포함한 4개 회사를 방문했다.

멕시코가 북미를 비롯한 중남미시장 공략의 중요한 교두보인 만큼 협력사 회장단은 성우하이텍 멕시코법인의 품질상황실, 양산 중인 YDm(현지명 K3)의 조립동과 프레스동을 둘러보았

다. 아울러 53초당 1대꼴로 K3를 생산하며 기아자동차 완성차 공장 중 최고 수준의 생산성을 뒷받침하고 있는 성우하이텍의 설비 및 관리시스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다.

멕시코법인은 올해 말까지 기아자동차 멕시코공장의 K3 생산 10만 대를 시작으로 향후에는 프라이드(현지명 '리오') 후속의 현지화 된 모델 등을 추가하며 연간 40만 대의 차체부품을 생산하는 규모로 발전할 것이다.



성우 안전365 결의대회, 안전관리정책 개선안 추진, 안전의식 고취

지난 10월 11일 서창공장 대강당에서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성우 안전365 결의대회'가 개최되었다. 특히 이번 안전결의 대회에는 멕시코법인의 HR소속 직원들이 직접 참가하여 그 의미를 더했다.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매년 시행되고 있는 대회인 만큼 안전환경팀에서는 2016년 재해율 현황과 원인, 주요 사고사례를 분석하고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무재해를 습관화할 수 있도록 '무재해 달성 포인트제도' 등의

안전관리정책을 보완하는 개선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혀 임직원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무심코 한 작은 행동 하나가 커다란 재앙을 불러온다는 이른바 '나비 효과', 안전도 마찬가지다. 작고 사소한 일이라 생각하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부주의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무심코 한 작은 행동일지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경각심을 갖고 그것을 생활화, 습관화 한다면 안전문화를 실천함은 물론 그 자체만으로도 모두가 원하는 변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서병수 부산광역시장, 성우하이텍 러시아법인 방문

서병수 부산광역시 시장, 홍성화 국제협력과 국제관계대사 등 방문단 일행이 8월 2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위치한 성우하이텍 러시아법인(SUNGWOO RUS)을 방문하였다. 유라시아부산원정대 중착 기념인 '부산데이' 행사 참석차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도착한 방문단은 부산의 대표 기업인 성우하이텍의 러시아법인을 직접 찾아 해외 진출과 관련한 여러 애로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아산성우하이텍, 무재해목표 3배 달성

아산성우하이텍이 8월 18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무재해 3배수 기록인증서를 수여 받았다. 충청남도 아산시에 소재한 아산성우하이텍은 2015년 9월 2일부터 2016년 7월 10일까지 총 733,798시간 동안 무재해목표 3배를 달성하였으며, 평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과 사업장의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아산인사총무팀 정연욱 대리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황경용 충남지사장으로부터 무재해운동 유공자 표창장을 받았다.



2016년 성우하이텍 신입/경력 공개채용

성우하이텍은 10월 10일부터 17일까지 채용홈페이지(<http://recruit.swhitech.com>)를 통해 <2016년 사무관리직 신입/경력 공개채용>을 알렸다.

'2016년 공개채용'은 신입과 경력을 함께 선발한다. 지원분야는 기획관리직군, 연구개발직군, 생산기술직군으로 나뉘며 기획관리직군은 △재경, △경영지원, △IT, 연구개발직군은 △R&D, 생산기술직군은 △품질, 생산, 구매, △금형개발, 생산기술 등 총 3개 직군 6개 직무로 구분하여 지원자를 모집한다.

채용 전형은 서류전형, 1차 면접(인적성검사, PT면접, 그룹토론, 실무면접), 2차 면접(영어구술면접, 임원면접), 신체검사 순으로 진행된다. 최종 전형에 합격 시 신입의 경우 인턴사원으로 선발되어 3개월의 인턴과정을 거친 후 최종 입사가 결정된다.

2016년 성우하이텍 신입/경력 공개채용

1.모집부서(사무관리직)

구분	직무	관련전공	우대사항
기획관리직군	재경	상경계열	공인회계사, 세무사, 회계 관련 자격증 소지자
	경영지원	상경계열	회계, 투자분석 관련 자격증 소지자 금형설계 및 기계공학 관련 자격증 소지자 영어 능력 우수자, 독일어 의사소통 가능자
	IT	IT계열	MS 엑셀(Excel), .NET, SQL DB)개발, JAVA/오라클 개발 경력자 MES 개발 경력자 영어, 중국어 의사소통 가능자
연구개발직군	R&D	기계공학, 자동차관련	CATIA 교육 수료자, 자동차 설계 유경험자
생산기술직군	품질 생산 구매	기계공학, 산업공학	차체 품질관리 유경험자 기계 및 품질관리 자격증 소지자 구매, 자재관리 유경험자 철산지 관리자 자격증 소지자 전기기사, 가스기사, 설비보전기사 자격증 소지자
	금형개발 생산기술	기계공학, 이공계열	프레스 금형 설계/공법/개발 프로젝트 관리 유경험자 차체부품 신차개발 유경험자 CATIA, CAD, MOD VIEW, AUTOCAD 사용가능자

2017년도 성우하이텍 어린이집 원아모집

성우하이텍은 10월 10일부터 10월 24일까지 '2017년도 성우하이텍 어린이집 원아모집'을 실시하고, 임직원을 대상으로 10월 11일 원아모집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2017년 3월 경남 양산시 주진동 웅상출장소 인근에 어린이집을 개원하며, 직원 자녀 중 만1세에서 만3세의 유아를 대상으로 원아를 모집한다. 온라인 신청은 푸르니보육지원재단 홈페이지(www.purni.com) 내 <성우하이텍 어린이집>의 신청서를 작성하면 접수되며, 최종 대상자는 11월 2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염성법인 모범사원, 성우하이텍 본사 방문

중국 염성법인(염성, 무석, 연태, 심양)에서 선발된 모범사원이 9월 2일 성우하이텍 서창공장을 방문하였다.

염성법인은 매년 모범사원을 선발하여 한국 본사의 우수 개선사례를 직접 체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 모범사원들은 9월 1일부터 5일까지 4박 5일 동안 본사의 각 사업장을 돌아본 후 부산과 서울에서 한국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차사랑, 성우하이텍 서창공장 방문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의 주관으로 '자동차를 사랑하는 모임 차사랑' 회원들이 8월 17일 성우하이텍 서창공장을 찾았다.

올해는 현대자동차 협력사 가족으로 구성된 학부모와 자녀들이 서창공장을 찾았다. 그랜드 품질 5스타 업체로서 한국을 대표하는 부품기업의 생산라인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국산 자동차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부산동부고용노동지청과 노·사·정 사회적 책임 실천 협약 체결

성우하이텍은 10월 18일 서창공장에서 부산동부고용노동지청 이규원 지청장을 모시고 '노·사·정 사회적 책임 실천협약'을 체결하였다.

이규원 지청장은 "성우하이텍의 모범적인 노사관계는 기업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일·가정 양립에 필요한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고, 이문용 대표이사 사장은 "일과 삶의 균형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하는 회사라는 비전으로, 일을 통해 어떤 즐거움을 찾을 것인가를 고민할 때 개인은 물론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어 김근수 노조위원장은 "노동조합 역시 노사 신뢰를 바탕으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겠다"는 소회를 전했다.



<별을 쏘다>, 한국사보협회의 '우리 사보 자랑하기'에 소개



성우하이텍에서 발간하는 계간지 <별을 쏘다>가 한국사보협회에서 발간하는 'Communication NETWORK' 9월호(통권 제271호)에 소개되었다. 우리 사보 자랑하기 코너에 첫 번째로 게재된 <별을 쏘다>는 '성우하이텍의 소통매거진으로서 성우인들의 희로애락이 묻어있다'고 소개되었다. 매호 다른 콘셉트로 호기심을 자극하는 <별을 쏘다>는 성우하이텍의 기업문화를 담아내는 그릇으로써, 늘 가까이 두고 읽는 사보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성우하이텍과 함께하는 2016 열린바다 열린음악회 개최



부산바다축제의 하이라이트 공연인 '성우하이텍과 함께하는 열린바다 열린음악회'가 8월 7일 저녁 해운대 해수욕장 특설무대에서 개최되었다. 해운대 밤바다를 뜨겁게 달군 이번 열린바다 열린음악회는 'The Vocalist MEMORIES'라는 주제로 부산바다축제의 대미를 장식하였다. 가수 거미와 그룹 포맨 신용재, 가수 송하예의 감성적인 무대는 해운대 해수욕장을 찾은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가슴 벅찬 감동을 선사하였다.

Ready, Action



아성FS가 낚아 올린 것은
물고기가 아니라 씨알이 굵은
행복이 아닐까?





소통과 배움을 함께하는 성우의 강태공들

| 낚시동호회 아성FS |

아산성우하이텍에서 1시간여 거리의 어느 인공낚시터.
범상치 않은 한 무리의 낚시꾼들이 진지한 눈빛으로 찌를 응시한다.
탁! 입질이 오자 대를 당기고 릴을 감는다.
팔뚝만한 물고기가 펄떡거리며 끌려 올라온다!



불꽃남자들의 짜릿한 휴식, 낚시

아산성우하이텍 낚시동호회 아성FS는 지난 7월 창립되었다.
회장직을 맡고 있는 아산 조립3반 윤기원 반장은 풍부한 낚시 경험을 가진 매니아다.
낚시 관련 온라인카페를 운영하기도 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성우FS를 창설하고 홍보를 시작했다. 사내에 낚시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고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을 모은 것이다. 짧은 모집기간에도 불구하고 현재 25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성우FS는 주로 바다나 강으로 출조한다. 한창 주꾸미 철인 요즘은 배를 타고 나가기도
한다. 가까운 인공낚시터를 애용하기도 하는데, 간단하게 자주 즐기기에 이만한 곳도
없다. 회원들은 종종 조과 경쟁으로 밥값 내기도 한다. '진정한 낚은 조과로 말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밥값 내기는 달랐다. 아산성우하이텍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인공
낚시터인 송악바다낚시터에 출조를 나간 날, 윤기원 반장이 기어코 9마리를 낚아 1등을
차지하고야 만다. 신인옥 총무는 7마리를 낚아 2등이다. 참돔, 병어돔, 돛돔 등 씨알이
큰 놈들은 70cm 이상이다.

기막힌 손맛. 성우FS에 정기 출조가 없음에도 한 달에 한 번 이상, 최근에는 5주 연속
출조를 하는 이유다. 차분하고 진지하게 물질을 기다리는 것이 열정이 넘치는 성우인들
에게는 고행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든다. 하지만 기다릴 때와 행동할 때를 알고 하는
낚시는 어떤 동호회 활동보다 활기차고 재미있다. 기다림 뒤의 손맛은 그야말로
짜릿하다. 이렇게 낚시는 사람의 마음을 차분하게 달래주면서 짜릿한 즐거움을 느끼게
한다. 불꽃 같은 성우인의 열정에 가장 어울리는 레포트가 아닐 수 없다.



우리가 낚는 것은 씨알 굵은 행복

아성FS는 성우인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낚시에는 답이 없다. 오로지 경험을 통해 나만의 노하우를 가져야 한다. 그러나 혼자 배우는 것보다는 경험 많은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빠르게 배우는 방법이다. 아성FS 내에서는 회원들 간의 소통이 자연스럽다보니 초보 동호회원도 쉽게 낚시를 배울 수 있다. 동호회 활동 참여율을 봐도 이런 분위기를 알 수 있다. 한 번 출조에 보통 10여 명이 참여한다.

근무자를 제외하면 90% 이상의 참여율이다.

낚시동호회를 통한 선후배 간, 부서 간 소통은 배움이 되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서로를 이해하는 지름길로 이어져 사내 분위기도 덩달아 즐겁다.

동호회 회원들은 낚시를 하다보면 배울 것이 많다고 입을 모은다. 침착함과 집중력을 항상 시킬 수 있어 회사 일을 할 때도 안전에 대한 기본 마음가짐을 갖출 수 있다.

그래서 아성FS는 사내 동호회로서 갖는 의미가 더 깊다.

아침 일찍 낚시터에 자리 잡은 것이 어느덧 해가 저물어간다. 각자의 수확을 보려고 망을 들어 보니 무게가 만만찮다. 누군가 수확물이 신통찮다며 애교 섞인 투정을 부리자 많이 잡은 사람이 못 이기는 척 좀 더 나누어준다. 아성FS가 녀 달의 짧은 활동기간에도 불구하고 사내 동호회로서 탄탄히 자리 잡는 이유는 단순히 취미활동이기보다 좋은 동료들과 귀한 시간을 함께하며 일과 삶을 조화롭게 하기 때문이다.

아성FS가 낚아 올린 것은 어쩌면 물고기가 아닌 씨알이 굵은 행복이 아닐까? 🎣



왼쪽부터

- 1 장윤혁 기장(아산 조립4반)
- 2 이상휘 조장(아산 조립3반)
- 3 윤기원 반장(아산 조립3반)
- 4 최영옥 대리(아산 자재지원팀)
- 5 김병오 조장(아산 조립3반)
- 6 허무건 기장(아산 조립3반)



아성FS가 알려주는 낚시 용어



조사

낚시하는 사람을 이르는 말로, 물고기를 낚지 못한 낚시꾼은 '깡을 쳤다'고 해 깡 조사라고도 부른다.

조과

물고기를 잡은 성과.

씨알과 뺑

씨알은 물고기의 길이를 말하며, 뺑은 물고기의 두께를 말한다.

출조

낚시하러 가는 걸 '출조 간다'고 한다.

월척과 대물

붕어 낚시에 쓰는 용어로 머리부터 꼬리지느러미까지 측정해서 30.3cm 이상을 월척이라고 한다. 바다낚시에서는 월척이라는 표현 대신 대물이라는 표현을 쓴다. 뱀에돔은 40cm 이상, 감성돔과 돌돔은 50cm 이상, 참돔은 70cm 이상, 농어는 80cm 이상일 때 대물이라고 한다.

바다낚시와 민물낚시

바다낚시는 해안가, 갯바위, 방파제 위에서 혹은 배를 타고 하는 낚시이다. 주로 가자미, 납치, 감성돔, 노래미, 참돔 등 바다고기를 목표로 하는 낚시이다. 민물낚시는 계곡, 강, 호수, 저수지 등에서 붕어, 잉어, 쏘가리, 은어, 향어, 송어 등 민물고기를 목표로 하는 낚시를 말한다. 바다낚시의 경우 다이내믹한 낚시를 즐길 수 있는 반면 민물낚시는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유리하고, 바다에 비해 안전하고 조용하다.

탁구로 한·중 우의의 다리를 놓은 창주성우기차부건유한공사

전날 큰비가 내렸던 사실이 무색할 정도로 청명한 하늘이 8월 26일의 특별한 이벤트를 더욱 설레게 만들었다. 창주성우와 중국 창주시 중국-체코 첨단과학기술산업개발구의 탁구 친선경기가 열리는 당일, 300여 명의 창주성우 임직원들은 개발구에서 나온 특별한 손님맞이에 여념이 없었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시간

공장동 내부에 마련된 특설 경기장에서 이명근 회장은 지난해 1월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올해 8월 준공 검수 합격에 이르기까지 도움을 주었던 개발구의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또한, 신공장 준비로 누구보다 바쁜 시간을 보낸 창주성우 가족들에게도 격려를 보냈다. 특히 “서로 합심하고 사랑하며 멋진 회사로 만들어 나가자”며, 임직원과 “성우하이텍 Let's go!”를 함께 외치며 개회사를 갈음했다.

지역 대표로 초청된 여진화 서기는 “계약을 체결한 후 짧은 시간 동안 성공적으로 양산 준비를 마칠 수 있었던 것은 개발구와 성우가 서로 협력하고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오늘 친선경기는 정부와 기업이 더욱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좋은 계기이고, 개발구 경제의 신속한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는 축하인사를 전했다.



뜨거운 열정속으로

식전 행사를 마치고, 창주성우와 개발구 양 팀은 뜨거운 열전에 돌입했다. 시합은 7전 4선승제로 진행되었으며, 단식 4경기와 복식 3경기로 이뤄졌다. 이날 행사 중 초미의 관심은 이명근 회장과 여진화 서기의 첫 번째 개인 단식경기였다. 3대 2의 세트 스코어가 말해주듯 박빙의 경기력으로 좌중을 흥분시킨 첫 단식 우승자는 이명근 회장이었다. 손에 땀을 쥐고 경기를 응원하던 양 팀 관중들은 환호와 탄식을 주고 받았다. 창주성우는 여세를 몰아 단식에서만 2승을 챙기며 초반 우위를 보였다. 하지만 개발구의 대표선수들은 탁구 중주국의 실력을 마음껏 뽐내며 남은 단식의 승리를 나눠 가졌다. 복식에서는 모든 승점을 챙기면서 전세를 뒤집고 말았다. 결국 친선 탁구 대회는 최종 스코어 3대 4로, 개발구 팀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드라마틱했던 탁구 친선경기는 개발구 인사들과 우의를 다지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창주성우 선수단과 응원단은 그동안 양산 준비로 쌓였던 피로를 풀고
활력을 북돋우며 한마음으로 뭉치는 뜻 깊은 시간을 보냈다.



乒乓架起韩中友谊桥 沧州星宇汽车部件有限公司

8月26日，应星宇集团董事长李命根邀请，园区领导吕振华、孙从起和园区业余乒乓球爱好者齐聚沧州星宇科技有限公司，一场象征着“友好合作、共同发展”的乒乓球友谊赛在此开拍。

确认对方心意的时间

李命根会长在讲话中首先感谢园区领导一年来对沧州星宇的帮助与支持。他希望星宇集团以本次乒乓球比赛为契机，增强与园区的融合度，增强企业凝聚力，从而推进企业健康顺利发展。简短仪式后，双方球员纷纷走入比赛场地，开始赛前热身。比赛采取五局三胜制，以单打和双打两种形式展开。在个人单打比赛中，最吸引眼球的要数李命根会长和吕振华书记的个人单打。两位年近花甲老人比试起来，精神饱满，积极认真。小球载着众人的目光不停穿梭，在空中划出一道道优美弧线，传递着友谊，传递着运动带来的激情与快乐。赛前，吕振华欣喜地说，沧州星宇从签约到落地并在短时内达产，是我们双方“团结合作、共同努力”的结果。我们感到无比骄傲。今天，我们联袂组织这场乒乓球友谊赛，就是双方携手进步的最好象征。我希望通过这场比赛，能够将我们的企业做得更好，并以此助推园区经济更加迅猛的发展。

在激烈的角逐中

沧州星宇总经理金会喆与孙从起在比赛中，充分展示了娴熟的技巧和功底，预示着星宇企业将与中捷高新区合作双赢。本着“友谊第一，比赛第二”的竞赛精神，来自园区和沧州星宇的业余乒乓球爱好者互有切磋。这场比赛充分展示着双方员工的风采，丰富了双方员工的文化生活。

창주성우기차부건유한공사, 중국 자동차 시장을 사로잡다

창주성우기차부건유한공사는 북경, 염성, 무석, 심양, 연태에 이어 설립된 중국 내의 6번째 법인으로, 2015년 4월 20일 중국 칭주시 중국-체코 첨단과학기술산업개발구 첨단제조단지에 설립했다. 창주성우가 들어선 중국-체코 첨단과학기술산업개발구는 1956년 중국이 체코슬로바키아로부터 농기계를 선물 받으면서 이를 기념하기 위해 조성된 곳이다. 성우하이텍 역시 2005년 체코에 연간 60만대 규모의 자동차 차체부품 제조공장을 건설하면서 맺은 인연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부지 약 18만㎡, 총 9천만 달러가 투자될 창주성우는 생산물량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2016년 말까지 500여 명의 임직원이 연간 30만대 규모의 차체부품을 생산할 계획이다. 창주성우의 주력 차종인 YC(베르나, 중국형 엑센트)의 생산라인은 1500톤 프레스로 구성된 대형 프레스 3개 라인과 4개의 소형 프레스라인, 로봇 자동화 조립라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沧州星宇汽车部件有限公司吸引了中国汽车市场

沧州星宇汽车部件有限公司, 韩国独资企业, 成立于2015年4月20日, 坐落于沧州市中捷高新技术产业区开发区高端制造园区, 占地面积173720平方米, 注册资金3000万美金, 投资总额9000万美金, 2016年底工作人员预计达500余人, 生产品种为YC等车体部件, 年间产值预计达到30万台份, 销售额预计达11亿人民币。沧州星宇汽车部件有限公司是韩国星宇科技有限公司在中国设立的第六家法人。星宇科技曾已在中国北京、盐城、无锡、沈阳、烟台、重庆等地区分别设立了中国法人。星宇公司主要以生产汽车的车体配件产品, 包括汽车零部件的精冲模, 模具标准件, 夹具, 精密在线测量仪器。YC车种生产线, 大型冲压机3条线, 1500吨冲压机等13台机器; 小型冲压机4条线, 300吨冲压机等18台机器。1956年初捷克政府赠送给中国一套可耕种10万亩土地的现代化农业机械装备, 为了纪念此事中国政府建造了中国捷克高新技术产业开发区。2005年星宇科技有限公司也在捷克建设了规模年产60万辆的工厂, 至今为止并跟捷克结缘。



따끈따끈한
일일호프가
왔어요~♪

성우인에게 가을은 특별한 계절이다.
풍성한 사내행사들이 줄을 잇는다.
그중 유독 마음을 훈훈하게 만드는 행사가 있다.
'제14회 성우하이텍 열린마음 이웃사랑 나누기 한마당'이다.
한마음 한뜻으로 준비한 행사는 말 그대로 '대박'.
성우인이라는 이름으로 똘똘 뭉쳐 훈훈한 마음을 전한
그 날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자.







Episode 1

비가 내리고~

가을 정취를 벗 삼아 야외에서 진행되었던 종래의 일일호프 행사는 올해 실내에서 진행됐다. 연이어 내렸던 비 때문이었다. 행사 장소도 정관읍 좌광천 중앙공원에서 기장실내체육관으로 바뀌었다. 행사 당일 날씨가 받쳐주면 좋을 텐데 하는 기대가 무색하게 그만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러잖아도 비가 오면 어찌나 하고 전전긍긍하던 총무팀은 부랴부랴 새로운 장소 섭외로 고생을 했다는 후문.

Episode 2

전투식량 먹어봤지 말입니다

일일호프에는 풍성한 먹거리를 빼놓을 수 없다. 올해는 특별한 먹거리 하나가 등장했다. 바로 전투식량이다. 여사우회의 노련한 배식으로 행사장을 찾았던 모든 사람이 빠짐없이 전투식량을 맛볼 수 있었다. 전투식량은 포장지를 뜯고 물과 발열팩을 각각 넣어두고 10분 정도만 기다리면 된다. 처음 전투식량을 접

한 사람들은 매우 신기해했다. 남자들은 군 복무시절을 떠올리며 담소를 나누기도 했다. 전투식량 복음밥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사이 성우인과 지역민들은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인 가족처럼 두런두런 이야기꽃을 피웠다.

Episode 3

끼는 이런 것이다!

올해는 유독 끼 많은 성우인들 덕분에 장기자랑 시간이 즐거워졌다. 행사 시작 전 복도에서 열심히 연습하고 있던 R&D본부팀, 리허설을 3번이나 하는 열정을 보여준 작년 1등 수상팀인 인사정보사업본부팀 등 그 모습만 봐도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준비한 장기자랑인지 알 수 있을 정도였다.

장기자랑 무대 막이 오르고, 첫 포문은 작년 장기자랑 1등 수상팀인 인사정보사업본부팀의 축하공연이었다. 화끈한 무대 매너에 역시 1등을 할 만한 팀이라며 장내가 시끌시끌했을 정도였다. 뒤이어 지사사업부팀의 멋들어진 트로트와 막춤이 웃음을 더했다. 생산구매사업본부팀은 가을 정취를 흠뻑 머금은 색소



성우인과 지역민들은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인 가족처럼
두런두런 이야기꽃을 피웠다.

폰 연주를 준비해 듣는 이의 '심쿵'을 유발시켰다. 그리고 생산 기술본부팀과 R&D본부팀의 아이돌 댄스 커버와 여심을 사로잡은 금형개발사업본부 전청택 사원의 고해까지. 장기자랑은 마치 전국 노래자랑을 방불케 했다. 1등의 영광은 금형개발사업본부 전청택 사원이 가져갔다.

Episode 4

어깨가 들쭉여서 난~ 감 하네~♪

다양한 장르의 공연 프로그램도 이어졌다. 잔잔한 통기타 공연부터 수궁가로 장내를 찌렁찌렁 울렸던 퓨전국악, 팔다리를 들쭉거리게 만든 이미테이션 사이까지! 롯데하이마트의 치어리더 박기량과 함께하는 댄스 레크리에이션도 젊은 직원들에게 큰 인기였다.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뜨거운 에너지를 채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일일호프에 왔던 성우가족과 지역민들은 "행사에 참석해 가을의 정취도 느끼고 가족과 뜻 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자녀들이 아빠가 다니는 회사를 자랑스러워해서 더욱 기쁘다"는 소감을 전했다.

Episode 5

We are Global 성우하이텍! Let's GO!

이날 일일호프 행사에서는 이명근 회장을 비롯 임원진도 자리했는데, 지역민들과 함께 어울렸고, 레크리에이션 시간에는 사원들과 함께 춤을 추며 '성우인은 하나!'를 실천하는 장이 되었다. 축사를 하기 위해 무대 위로 올라온 이명근 회장은 생산기술2팀 박영민 과장의 자녀인 박시연 양과 함께 등장하여 한층 훈훈해졌다. 반면 박시연 양은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낮설었는지 그만 울음을 터트려 장내는 한순간 아빠 미소 엄마 미소로 가득 차기도 했다.

이명근 회장은 "20년 전 세계화를 외쳤을 때부터 현재까지 우리 성우는 끊임없이 도전하고 성장해왔습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뒷받침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항상 미안하면서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하나가 되어 열심히 나아갑시다."라는 축사에 이어 성우가족의 가정에 행복과 밝은 미래를 담아 "We are Global 성우하이텍! Let's GO!"를 힘차게 외쳤다. 성우가족들도 다 함께 "GO!"를 외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새로운 출발, 값진 결실을 기대하다

2016년 사무직 승진자 명단이 발표됐다.
승진 대상자들에게겐 은근한 기대와 설렘이 교차하는 순간이었다.
동료들의 축하 인사와 부러움에 찬 시선들이
'이제부터'라는 새로운 각오를 다지게 했다.





역사탐방으로 확인하는 리더십

승진자 교육은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1차수, 9월 7일부터 9월 8일까지 2차수로 나누어져 통영 금호 마리나리조트에서 진행됐다. 승진자들은 한산도, 세병관, 충렬사 등을 방문한 뒤 요트를 타고 직접 바다로 나가 '이순신 리더십'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딱딱한 이론 교육을 벗어나 교육생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생생한 역사의 현장을 느끼고, 리더십을 체득할 수 있었던 역사교육이었다.

인문경영을 위한 생각의 도구

이번 승진자교육 커리큘럼에 새롭게 추가된 인문학 강의가 승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인문학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어떻게 경영에 접목될 수 있는가에 포인트를 두고 마련된 강의였다. 강의를 진행한 최준영 교수는 승진자들에게 '소통의 도구로서 인문학'에 대해 역설하며, 인문학은 정답을 내려주는 노하우(know-how)가 아닌 질문을 하는 노와이(know-why)라고 말했다. 상사 혹은 부하의 마음속으로 들어가고, 들어올 수 있도록 받아주는 것이 바로 인문학이다. 이러한 소통이 모여 담론이 되고, 담론과 담론이 만나서 비전이 된다. 승진자 스스로의 비전이 모여 회사의 비전이 되고, 그것이 국가의 비전이 되며, 곧 인류의 비전이 된다는 말도 덧붙였다.

승진자들은 두 시간의 짧은 강의 시간을 아쉬워했다. 특히 이번 인문학 강의에 대해 '회사에서 강조하는 소통을 주제로 사람과 관계에 대해 생각하는 모멘텀(Momentum)이 되었고, 자신을 중심으로 한 번쯤 주변을 돌아보며 폭넓게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는 의견이 많았다.

승진은 새롭게 거듭나는 과정

이번 2016 승진자 교육을 마치면서 승진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게 되었다고 말했다. 지난 아쉬움과 후회는 조출하면서 작은 깨우침이었다. 새로운 직급으로 승진한다는 것은 지나온 잘잘못을 교훈 삼아 단점은 비우되 장점은 채워가며 한 단계 성숙한 성우인으로 거듭나는 과정임을 이번 승진자 교육이 확인시켜 준 것은 아니었을까. 🚀

너도나도 “Fantastic!”

10월 2일 '성우하이텍과 함께하는
2016부산바다마라톤대회'가 개최됐다.
3개 해상대교를 이어서 달리는 축제 한마당.
역대 최대 2만여 명이 참가하여
부산의 가을을 수놓았던
마라톤 축제를 향하여 Go! Go!





3개 해상대교 통과하는 세계 유일 마라톤 축제



바닷바람을 시원하게 가르며 달리는 '바다마라톤대회'가 2016년에는 보다 업그레이드됐다. 5km, 10km, 하프 코스로 나누어 치러지는 올해 대회 중 하프 코스는 '광안대교~부산항대교~남항대교'를 이어달리는 새로운 코스로 구성됐다. 부산의 랜드마크인 세 개의 해상대교 위를 달리는 것만으로도 세계 유일의 바다마라톤 축제가 되었다. 특히 미국 등 40개국에서 외국인 1천여 명이 참가해 국제 대회의 면모까지 갖췄다. 내국인 참가자 중에서는 성우가족 참가율이 매우 높다. 2007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1천 명 이상이 참가해 9년째 최다 인원 참가기업이 됐다. 성우가족을 포함 국내외 참가자들은 세계 어디에 내놔도 손색없는 최고의 코스를 달리며 하나같이 '엄지 척!'이다. 참가자들 복장에서조차 축제 분위기가 물씬 풍겼다. 요리사 모자를 쓴 사람도 있고, 아이의 건강을 기원하는 문구를 옷에 새긴 참가자도 있었다. 다양한 부대행사도 이날의 볼거리였다. 집결지에서는 각종 퍼레이드와 부스별 참여이벤트, 축하 비행 행사가 열렸고, 해상교량 위에서는 인디밴드와 치어리더, 풍물단의 응원이벤트가 열렸다. 코스 사이사이 참가자와 응원 나온 사람들끼리 하이파이브를 하는 진풍경도 연출됐다.



어디까지 달려봤어? 김수환 사원, 하프코스 도전기

사내에 하프코스(21.0975km) 신청자가 있어 눈길을 끈다. 바로 개발기획팀의 김수환 사원! 게다가 아버지와 함께 참가한다고 하니, 더욱 호기심이 동(動)한다. 그를 따라가 보자. 9월 25일 일요일 아침 6시 반, 이른 아침부터 해운대 달맞이고개에는 수환 씨와 그의 아버지 김상동 씨를 비롯하여 가벼운 운동복 차림의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다. 수환 씨의 아버지가 속해있는 <해운대 달사모(달리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동호회 회원들이다. 동호회는 한 명씩 돌아가며 서포터가 되어 간식을 준비하고, 행여 발생할지도 모를 부상자 처치와 치료를 위해 차로 함께 이동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이들과 함께 연습하는 수환 씨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이날의 연습코스는 달맞이 고개 입구에서 시작해서 송정해수욕장 죽도공원을 지나 구덕포를 거쳐 되돌아오는 코스이다. 대회 전 마지막 연습이라 수환 씨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맴돈다. 뛰다 보면, '이쯤 하면 됐어'라는 마음이 수십 번도 더 들지만, 함께 뛰는 수환 씨의 아버지는 거침이 없다. 2009년 수환 씨가 마라톤을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4차례의 풀코스(42.195km)를 포함하여 10여 차례의 마라톤을 완주할 수 있게 한 힘의 페이스메이커인 아버지 덕분이다. 이날도 아버지를 따라 1시간 30여 분에 걸쳐 12km를 완주했다. 다음 주(10월 2일) 마라톤에 대한 자신감이 조금은 상승한 듯하다.

땀방울로 빚어낸 건각을 자랑하며 달리다

2016부산바다마라톤 대회의 막이 올랐다. 대회 시작을 앞두고 거짓말처럼 비가 푹 그쳤다. 쾌적하고 즐거운 레이스를 펼칠 생각에 벌써 다리에 힘이 실리는 것 같았다. 마라톤은 늘 시작이 어렵다. '과연 이 먼 거리를 무사히 완주할 수 있을까?' 불안감이 엄습해 온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이 시기를 넘기면 다시 다리가 가벼워지고, 이내 가슴이 시원해진다. 아버지와 함께 부산의 3개 해상대교 위를 힘차게 달렸지만 코스 중반을 넘기며 아버지를 먼저 보내 드리고, 남은 거리는 혼자 마무리하기로 했다. 2010년 처음으로 도전했던 성우하이텍배 환경마라톤에서는 홀로 레이스를 견디지 못하여 다리에 쥐가 났고, 증도에 걸어서 완주했던 기억에 살짝 웃음이 났다. 다시 한 번 입술을 꼭 깨물었다. 마침내 피니쉬 라인에 도달했다. 라인에서 조금 더 환한 표정을 못 지은 것이 못내 아쉽다. 2시간 남짓 달려서 완주했지만, 아버지와 함께 들어오지 못한 것, 더 좋은 기록을 내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린다. 더운 날씨, 경사가 많은 코스 등 기록이 안 좋게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는 위로 보다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는 후회가 먼저 밀려온다. 그런 수환 씨의 등을 어루만져 주는 아버지의 손길이 참 따뜻하게 느껴진다. 다음 대회에는 더 좋은 기록으로 부자가 함께 피니쉬 라인을 통과하기를 기대해 본다. 



〈김수환 사원의 연습일지〉

	연습 코스	연습 내용	훈련시간	총 운동 거리	보강운동
대회 5주 전	달맞이 고개 → 동백섬	1km 워킹 / 2km 러닝 / 1km 워킹	54:25	3km 내외	스쿼트 10회
대회 4주 전	달맞이 고개 → 요트경기장	1km 워킹 / 3km 러닝 / 1km 워킹	1:05:18	5km 내외	앉았다 일어서기 10회, 종아리 올리기 10회
대회 3주 전	달맞이 고개 → 송정 해수욕장 죽도공원	워킹 2km / 러닝 8km / 워킹 2km	1:34:44	10km 내외	코어운동 40초 버티기
대회 2주 전	해운대여고 → 요트 경기장 → 동백섬 → 달맞이 고개(해월정) → 해운대여고	워킹 3km / 러닝 10km / 워킹 2km	1:40:16	15km~20km 내외	앉았다 일어서기 10회, 종아리 올리기 10회, 버피테스트 10회
대회 1주 전	달맞이 고개 → 송정 해수욕장 죽도공원 → 구덕포 → 달맞이 고개	워킹 5km / 러닝 10km / 워킹 4km	1:35:09	10km~15km 내외	코어운동 40초 버티기, 앉았다 일어서기 10회, 종아리 올리기 10회

최
지
영

'거리의 인문학자', '거지교수', 심지어 '노숙인 인문학자'라는 별명을 가진 인문학 실천가이다. 2005년 최초의 노숙인 인문학 강좌(성별 프란시스대학)에서 강의한 이래, 점차 대상을 넓혀 2014년에는 삼성그룹의 연구원과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강의하기도 했다. 2015년, 전국 지자체의 인재개발원과 평생학습관, 각 대학의 특수대학원, 도서관, 기업 등에서 초청 1순위로 꼽히는 대중 강연가이다. 2000년 문화일보 신춘문예(시나리오 부문)를 통해 등단한 이후 늘 현장의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글쓰기와 강의를 병행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 SBS라디오와 YTN 등에서 책 소개 코너와 <인문학 콘서트>를 진행해 왔다. 지은 책으로는 『책고집』(2015), 『어제 쓴 글이 부끄러워 오늘도 쓴다』(2013), 『결판을 즐겨라』(2012), 『유쾌한 420자 인문학』(2011), 『책이 저를 살렸습니다』(2010) 등이 있고, 공저로 『행복한 인문학』(2008)이 있다.

거리의 인문학자, 그에게

묻는다

바야흐로 인문학 열풍이 거세다.
혹자는 “먹고 살기 바쁜 시대에 웬
인문학이냐?”고 반문한다.
하지만 바쁜 하루의 끝엔 언제나 의문부호가 남는다.
지치고 힘든 자신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느긋한 심표를 찾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세상과 소통하고 사람 냄새도 맡을 수 있는
그 심표의 정체는
바로 인문학일 것이다.

인문학이 만들어낸 희망

최준영 교수. 그에게겐 상당히 많은 수식어가 붙어 다닌다. ‘거리의 인문학자’, ‘거지교수’, 심지어 ‘노숙인 인문학자’까지. 그의 40대를 주목해 보면 이런 수식어의 연원을 찾을 수 있다. 한창 경제활동을 하며 인생의 황금기를 구가할 때인데 그는 돈, 명예 따윈 바람 앞에 나뒹구는 휴지처럼 팽개치고 노숙인 인문학에 투신했다.

정확히 2005년부터 시작된 일이었다. 그는 성프란시스대학을 시작으로 관학인문대학, 경희대 실천인문학센터 등에서 인문학과 글쓰기 등을 가르쳤다. 그의 수업을 듣는 사람들은 노숙인, 여성가장, 수형인 등 우리 사회에서 소외받거나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계층이 주류를 이루었다.

최 교수는 그들을 위해 더 열심히 공부했고 누구 못지않은 열의를 보였다. 처음엔 낯선 이방인처럼 거리를 두고 지켜보던 그들에게서 조그만 변화가 감지되었다. 자신들을 위해 소위 ‘돈 안 되는 일’을 해주는 최 교수에게 마음을 열면서 그들 자신의 귀도 함께 열었던 것이다. 그때부터 최 교수는 자신도 모르는 훈장을 얻게 되었다. 앞서 언급한 별명들이 그것이다. 진심과 열정으로 일궈낸 훈장이었다.

그런 그는 요즘도 전국을 돌아다니며 강의를 하느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이쯤 되면 뼈뼉한 스케줄에 꽤 많은 수입도 있을 것으로 생각하겠지만, 전혀 그 반대다. 이리저리 밥 사 먹고 차비하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다. 그래도 최 교수는 즐겁다. 자신을 불러주고 인문학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준 것만도 고마운 일 아니냐는 것이다. 최 교수가 지향하는 것은 인문학 강의를 통해 삶의 희망을 만들어 가는 데에 있다. 그것은 단순한 지식의 전달이 아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끊는다는 것,
 노숙인이 다른 노숙인을 돕는다는 것, 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찾는다는 것, 현실에 찌들어 글 한 줄 읽지
 않던 노숙인들이 책을 찾는다는 것, 최 교수는 자신에게
 붙여진 '거리의 인문학자'라는 별명이 곧 최고의 선물임을
 절감할 수 있었다. 아무 것도 기대하지 않았지만, 아프고
 힘든 삶을 위하여 희망을 건네주고, 건강한 삶과 삶
 사이를 통찰하는 인문학의 진정한 가치를 위해서
 마치 묵정밭을 일구듯 묵묵히
 그 일을 해왔다.



그래서 인문학이 대체 뭘니까?

인문학이 뭐냐는 물음에 명쾌한 답을 내놓기는 쉽지 않다. 최준영 교수는 인문학은 '사람을 아는 것'이라고 말한다. '사람을 아는 것' 이전에 '나를 아는 것'이다. 노숙인 대상 인문학 강의를 하면서 인문학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지만, 인문학이 뭐냐는 질문을 막상 받으면 제대로 된 대답을 하기는 힘들었다. 그런 그에게 실마리를 내놓은 노숙인 수강생이 있었다. 그는 제주에서 서울로 올라와 사업에 실패한 뒤 밑바닥 삶을 살던 수강생이었다. 삶의 의지를 잃었던 그는 그저 공짜 밥에 솔깃하여 인문학 강좌를 듣기 시작했다. 인문학은 그에게 '생각할 것'을 강요하는 귀찮은 존재였다. 그렇게 인문학과 성가신 동거를 하던 어느 날, 문득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다. 가끔 돈이나 부쳐 달라는 남편의 전화를 받던 게 전부였던 아내였다. '뚜우, 뚜우' 짧은 통화음 끝에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 사랑해." 그는 다짜고짜 아내에게 사랑을 고백했다. 16년 만에 처음 해 본 말이라고 한다. "인문학을 배우지 못했으면,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지도 몰랐을 것 같네요." 그를 그토록 귀찮게 했던 '인문학'이 그에게 주었던 답이었다. 최준영 교수는 인문학에 대해 '나를 성찰하고 사람을 성찰하며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는 사람뿐 아니라 기업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회사의 비전을 올바르게 공유하면서 서로 존중하고 소통하는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에 있어 중요한 것은 인문적 소양이고, 인문적 태도이기 때문이다.

인문학이란?
- 사람을 아는 것
- 성장하는 것, 질문하는 것
- 지혜를 사랑하는 것(문·사·철)

예) 톨스토이의 문답.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잘 살기 위한 인문학, 읽고 쓴다

최 교수는 말한다. 자신의 삶은 숏한 좌절의 연속이었고, 그 좌절은 매번 다른 내용의 좌절이었다고 했다. 그는 “그때마다 나를 구원해 준 것은 꾸준한 책 읽기와 글쓰기였다. 책을 읽거나 글을 쓰는 순간 고통을 잊을 수 있고, 희망을 떠올릴 수 있었다”고 한다.

우리는 책을 많이 읽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살아간다. 현대인이 책을 못 읽는 이유는 어쩌면 수만 가지쯤 될 수도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시간이 없다는 것이다. 직장생활도 해야 되고, 친구도 만나야 하고, 집에 가면 애도 봐야 하는 현대인은 너무 바쁘다. 그런 현대인에게 우리나라 자기계발서 저자 1세대라고 할 수 있는 구본형 선생의 방식을 소개해주고 싶다는 것. 구본형 선생은 ‘하루는 22시간’이라고 말했다. 22시간 내에 할 일을 다 하고, 나머지 2시간은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서 썼다. 남는 시간에 책을 읽겠다고 생각하면 평생 못 읽는다. 그런데 순서를 바꾸면 가능하다. 발상의 전환이다. 책을 읽으면 생활에 치여 산다고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발견할 수 있고, 그것들이 현실에 접목되면서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다. 책이 나를 변화시키고, 변한 내가 창의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 유기적인 변화이다. 최준영 교수에게 책을 읽고 글을 쓰는 일은 자신을 위한 행복을 선사한다. 자신을 위한 자신만의 시간에 젖을 수 있다는 만족감이 첫 번째 행복이고, 어제 혹은 오늘의 일상을 돌아보며 아름다움과 추함을 비교하고 성찰하는 시간이 두 번째 행복이다.

이 두 가지는 인문학 공부의 당위성으로 연결된다. 인문학 공부는 성찰을 통해서 문제를 극복해가는 인간으로 발전해 가는 것이다.

사람에 대한 이해를 심도 있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서로에게 위로받고 희망을 공유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성우인을 위한 최준영 교수의 추천 도서



특정분야에 한정되지 않고, 과학, 수학 등 다양한 분야의 책을 섭렵하고 있는 최준영 교수의 올해 책 읽기 화두는 ‘생각’이다. 의외로 사람들은 올바르게 생각하는 법을 잘 모른다. 생각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서 출발한 화두이다. 최준영 교수는 성우인에게 “책을 추천받고 싶다면 맞춤 책을 추천해 줄 테니 언제든지 이메일을 보내라”고 전했다. 만약 성우하이텍에서 책 동호회를 만들게 되면 기꺼이 교문이 되어줄 테니 연락하라는 말도 덧붙였다.

e-mail yiyagy@naver.com

페이스북 www.facebook.com/junyeong.choe



생각의 탄생 (2007)

- 루트벤슈타인 부부

역사상 가장 위대하다고 손꼽히는 천재들이 자신의 창작 경험을 통해 ‘생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으며 또한 생각하는 법을 어떻게 배웠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준다. 그들의 발상법을 13단계로 나누어 창조성을 발휘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김상욱의 과학공부 (2016)

- 김상욱

세익스피어를 모르는 건 교양인으로 부끄러운 일이지만, 열역학 제2법칙을 모르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교양으로 진입장벽이 다소 높은 과학을 대중에게 쉽게 풀어 설명하며 인문학과의 접점을 시도한다.



최준영의 책고집 (2015) - 최준영

고종석, 안정효, 김탁환, 김훈부터 멀게는 다산 정약용까지, 우리나라의 좋은 문장을 구사하는 작가들의 저서 한 부분을 발췌하여 그의 독서와 글쓰기에 관한 생각을 우리에게 전한다. 그뿐만 아니라 그가 여행을 하며 느낀 것, 그가 바라보는 인생에 대한 마음속 회고, 책을 읽고 글을 읽는 자세를 에세이 형식으로 담백하게 담았다.

오늘도 보고 싶은 당신에게

우표 붙은 봉투에 적힌 낯익은 이의 이름.

가슴이 뛰다.

편지는 세월이 흐르면서 누르스름하게 빛이 바래가지만

글 속에 꼭꼭 눌러 담은 사랑은

영원히 가슴 속에 남는다.

편지를 받고 기뻐할 상대만을 생각하며 쓴 글이기에

주는 이에게도 받는 이에게도 더없이 소중한 편지.

가을에는 우리도 사랑의 편지를 쓰자.





물론 어린애 같은, 당신 보면 웃을 편지입니다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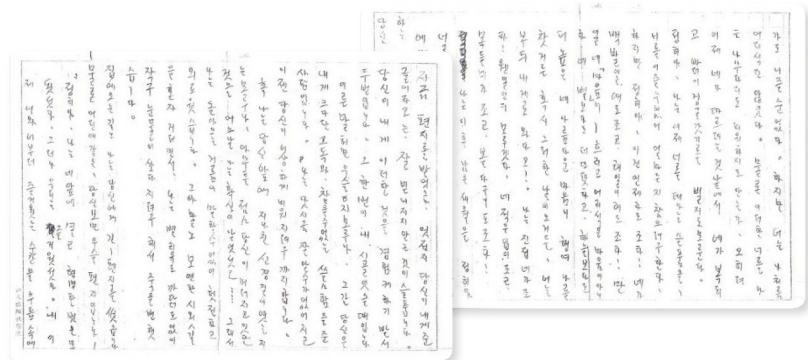
이상 ♥ 최정희

이상(李箱 · 1910~1937) _ 1930년대 한국 모더니즘 문학을 이끈 시인이자 소설가.
주요 작품으로는 <오감도(1934)>, <날개(1936)> 등이 있다.

「(상략) 그야말로 모험한 시외 길을 혼자 걸으면서 나는
별 이유도 까닭도 없이 자꾸 눈물이 쏟아지려고 해서 죽을 뻔했습니다.
집에 오는 길로 나는 당신에게 긴 편지를 썼습니다.
물론 어린애 같은, 당신 보면 웃을 편지입니다.
“(중략) 하지만 정희야, 이건 언제라도 좋다. 네가 백발일 때도 좋고 내일이래도 좋다.
만일 네 ‘마음’이 흐리고 어리석은 마음이 아니라 네 별보다도 더 또렷하고
하늘보다도 더 높은 네 아름다운 마음이 행여 날 찾거든 혹시 그러한 날이 오거든
너는 부디 내게로 와다오. 나는 진정 네가 좋다. 왜일인지 모르겠다.
네 작은 입이 좋고 목덜미가 좋고 볼따구니도 좋다.
나는 이후 남은 세월을 정희야 너를 위해 네가 다시 오기 위해
저 야공(夜空)의 별을 바라보듯 잠잠히 살아가려다.....”
하는 어리석은 수작이었으나 나는 이것을 당신께 보내지 않았습니다.
(중략) 정말 나는 당신을 위해 아니 당신이 글을 썼으면 좋겠다고 해서
쓰기로 한 셈이니까요. 당신이 날 만나고 싶다고 했으니 만나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 맘도 무한 흠어져 당신 있는 곳엔 잘 가지지가 않습니다.
금년 마지막 날 오후 다섯 시에 후루사토[故郷(고향)]라는 집에서 만나기로 합니다.
회답주시기 바랍니다. 李箱」

©이상 <최정희에게 보낸 편지> 中 발췌

이상이 25세이던 1935년 소설가 최정희에게 쓴 것으로 추정되는 편지 내용이다.
이때 이상은 연작시 ‘오감도’를 발표한 직후로 문단에서 한창 이름을 알릴 때였다.
그러나 직접 운영한 제비다방이 경영난 끝에 문을 닫고, 연인 금홍과도 이별하는 등
개인적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었다. 그의 편지에는 오랜 정신적 좌절에서 벗어나
‘당신(최정희)을 위해’ 다시 글을 쓰겠다는 다짐이 들어 있다.
그러나 최정희는 이상의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그의 사랑은 비극으로
치달았는지도 모른다. 이상은 이 편지를 쓴 2년 뒤 스물일곱의 젊은 나이에
일본에서 쓸쓸히 숨을 거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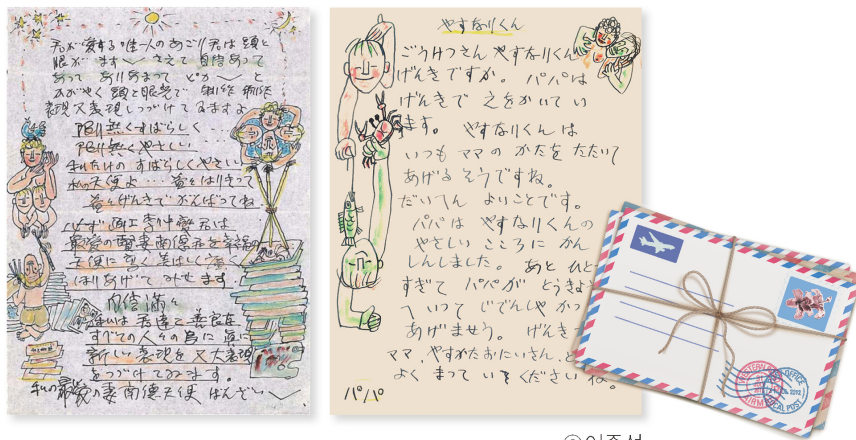


나의 귀엽고 소중한 남덕 군

이중섭(李仲燮, 1916~1956) _ 한국 근대서양화의 대표 천재화가. 주요 작품으로는 <물고기와 노는 세 어린이>(1953), <황소>(1954), <달과 까마귀>(1954) 등이 있다.

「나의 가장 높고 가장 크고 가장 아름다운 기쁨, 그리고 한없이 상냥하고
가장 사랑스러운 사람, 나만의 오직 한 사람, 현처 남덕 군 건강하오?
내 가슴은 그댈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득하오. ...」(중략)
나의 아스파라거스 군(발가락 군)에게 몇 번이고 몇 번이고 다정한 뽀뽀를 보내오.
한없이 부드럽고 나긋나긋한 나만의 아스파라거스 군에게 따뜻한 아고리의 뽀뽀를 전해주오.
나만의 소중한 갑각, 나만의 아스파라거스 군은 아고리를 잊지 않았겠지요?
 물어보고 답장을 자세하게 써서 보내주오. 태현군도 태성군도 아스파라거스 군도,
남덕군도 갑기 걸리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오. 아고리 군은 더욱더 기운차게 열심히 제작을
계속하고 있소. 안심, 안심하고 기뻐해주오. 나, 나만의 소중한, 소중한 또 소중한,
한없이 상냥한 유일무이한 사람, 귀중한 나의 빛, 나의 별, 나의 태양, 나의 모든 애정의 주인,
나만의 천사, 가장 사랑하는 현처 남덕 군 힘내오. -파파 중섭-

이중섭은 전쟁통에 건강이 악화된 부인과 두 아들을 일본으로 보내게 된다.
유일하게 부부로 보낸 7년의 시간, 그것은 평생 동안 간직해야 할 애절한 그리움의 시작이었다.
한국에 남아 있던 이중섭은 전국을 정처 없이 떠돌며 그들에게 200여 통의 편지와
엽서를 띄웠다. 편지와 엽서 귀퉁이에는 행복한 가족의 모습을 그려 보냈다.
역설적이게도 그가 처해있는 현실과 다른, 즐겁고 사랑스럽고 다정다감한 편지다.
'아고리'는 일본어로 턱을 뜻하는 '아고'와 이중섭의 성 '이(李)'를 합친 말로 턱이 긴
이중섭의 애칭이고, 편지글에 유독 자주 등장하는 '발가락 군'은 이중섭이
야마모토 마사코에게 지어준 애칭이자 그녀의 발가락에 붙여준 애칭이기도 했다.
또 그 발가락이 영락없이 아스파라거스를 닮았다 하여 '아스파라거스 군'으로도 불렸다.



©이중섭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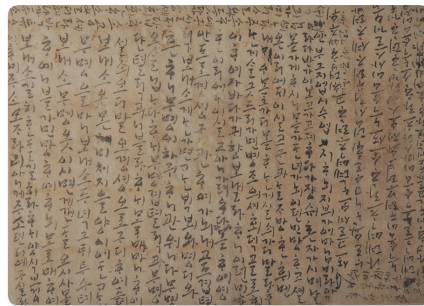
나신걸 ♥ 맹씨

안부를 그지없이 수없이 하네

나신걸(羅臣傑: 1461~1524) _ 1490년대(성종 21년) 조선 군관.

「안부를 그지없이 수없이 하네. 집에 가서 어머니랑 아기랑 다 반가이 보고 가고자 하다가 장수가 혼자 (집에) 가시며 날 못 가게 하시니, 못 가서 다녀가지 못하네. 이런 서러운 일이 어디에 있꼬... 분(粉)하고 바늘 여섯을 사서 보내네. 울고 가네.」

나신걸이 부인 맹 씨에게 보낸 한글 편지는 지금까지 발견된 것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2년 발굴 당시 접혀진 상태로 부인 맹 씨의 머리맡에 놓여 있었다고 한다. 나신걸은 가족을 고향에 두고 타지에 전근을 다니던 하급 무관이 었다. 평소에 주고받는 편지이니 이런저런 가정사를 챙기는 내용이 주를 이루지만, 편지 곳곳에서 아내와 가족을 생각하는 남편의 마음이 묻어난다.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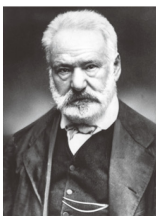
빅토르 위고 ♥ 레오니 비아르

그대가 내 마음속의 여왕이듯

빅토르 위고 (Victor Hugo, 1802~1885) _ 프랑스의 낭만파 시인, 소설가 겸 극작가이다.

대표작으로 <노트르담 드 파리>(1831), <레 미제라블>(1862)이 있다.

「오늘 오후 퐁트르리 공원에서 그대는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봄 하늘 아래 그 푸르른 나무들 밑에서, 머리 위에 피어 있는 라일락꽃들과 어우러져서 말이야. 당신 주위에서 자연의 만물들은 축제를 벌이는 것 같았어. 당신 그거 알아? 내 천사여, 나무들과 꽃들은 당신을 알아보고 당신에게 인사를 하더라고. 그대가 내 마음속의 여왕이듯, 향기를 발하며 꽃피는 만물들의 매혹적인 세계에서 그대는 여왕이야.」



프랑스 대문호 빅토르 위고는 '레오니 비아르'라는 여인에게 활화산처럼 불타오르는 뜨거운 사랑을 느꼈다. 그녀를 향한 위고의 마음이 얼마나 들떠있는지 편지 글에서도 절실히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위고가 사랑한 여인, 레오니 비아르는 화가 오귀스트 비아르의 아내였다. 더욱이 위고는 어릴 적 친구였던 아델 푸세와 이미 결혼한 몸이었고 애인까지 있었다. 한때의 쾌락을 주체 못했던 레오니 비아르는 밀애 현장을 들켜 차가운 감옥에서 그 벌을 받아야 했다. 위고 역시 조강지처 아델의 죽음과 슬하의 4남매 중 모두 죽고 마지막으로 남은 딸 레오폴딘이 익사하는 아픔까지 겹치면서 심한 우울증에 시달렸다고 전해진다. 🌧️

Healing Travel



Busan



인쇄골목



보수동 책방골목



40계단



부산하고 부산스러운
부산의 속살 들추기

추억이 깃든 책방골목 당일치기 여행!

유럽, 동남아, 강원도, 제주도 ...

어느 곳 못지않게

부산은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 최고의 여행지이다.

현대적이고 국제적인 도시로써

명성을 쌓아가는 부산이지만

스치고 지나갈 부산의 모습을

여행을 통해 겪어보는 것도 좋겠다.

특별함이 머문 보수동 책방골목과

40계단 테마 거리 알대는

우리 삶이 빠르게 스쳐 가며 보지 못했던

부산의 속살을 들여다보게 한다.

누군가는 말한다.

‘여행은 그곳에서 살아보는 것’이라고.



01



영롱한 빛깔을 찾아가는 보수동 책방골목

한국전쟁 이후, 부산은 임시수도가 되고 전국에서 몰려든 피난민들은 5백만이 넘었다. 부산이 수용 가능한 인구가 약 60만이었다고 하니 당시 삶이 얼마나 치참했었지는 피난민 수만으로도 짐작케 한다. 이복에서 피난 온 손정린씨 부부(구, 보문서점)와 몇몇 사람들은 전쟁이 끝나자 보수동 사거리 골목 안에 대중 터를 잡고 미군 부대에서 나온 헌 잡지 등을 팔기 시작하였다. 65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보수동 책방골목은 이렇게 태동한다. 주변에는 적산가옥(일본식 주택)이 드물게 보이고 골목 옆의 계단 길은 벽화들이 분위기를 자아낸다. 젊은 커플, 노부부, 가족, 외국인, 학생 무리, 책방골목은 찾는 이를 누구랄 것 없이 반긴다. 중고서적은 고르는 재미가 있다. 시중에서 찾기 힘든 보물 같은 책도 나온다. 가격흥정이 가능하다. 1권 가격으로 3권을 구입할 수도 있다. 예전에는 책을 사고 보면 가끔 연애편지나 영수증, 정말로 운이 좋을 땐 누군가의 비상금이 었을 지폐가 끼워져 있기도 했다. 그러나 서서히 상권이 얼어갔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새 변화의 조짐이 일며 다시 생동감을 찾았다. 오래전부터 장사를 해 온 맛집들과 몇 년 새 생긴 예쁜 카페들, 초라하지만 귀한 책이 빼곡한 연식있는 책방들과 젊은 감각이 입혀진 책방들이 들어서서 조화롭다. 오랜 빛깔과 새로운 빛깔이 어우러져 보수동 책방골목만의 독특한 전경과 분위기를 만들어낸다. '책방골목문화관'은 미니어처와 작품들을 전시하고 보존과 발전을 아우를 수 있게 한다. 상업 거리가 아닌 문화거리로서 새롭게 거듭나고 있는 것이다.



02



03

- 01 벽화로 꾸며진 인쇄골목 안 계단길
- 02 작은 책방이지만 없는 책이 없다.
- 03 서점 현수막의 평범한 글귀도 예사롭지 않다.

책방골목 안에는 지역밀착 여행을 추구하는 공정여행사 '핑크로더'가 있다. 책방골목 안의 여행사에는 특별함이 가득하다. 양화니 대표는 "처음에는 동아리 활동으로 문화지도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지역민들이 알차게 준비한 것들과 지역의 숨은 맛집을 소개하자는 목적으로 기획을 했죠.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공정여행사라는 개념의 여행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총알 여행'이라는 말이 유행처럼 쓰이는데 사실 여행은 천천히 해야죠. 골목 안에 깊이 들어가 작은 맛집을 발견하고 체험과 문화행사도 직접 해봐야죠. 근처에 인형, 액자, 공책만들기, 시인과 함께 책 골라보기, 인디영화 보기 등 작지만 다채로운 체험과 문화 예술이 많아요.

추억을 나누고 우정을 돈독히 할 수 있는 우정여행,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소통하고 행복해 하는 가족 여행이 되기를 바랍니다. 문의하시는 분들에게 맞춤 힐링 여행을 설계해 드리고 지역민과 연결하는 것이 제 역할이죠. 중요한 건 어느 여행지든 조금만 안으로 들어가 보면 겉과 다른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라며 꼭 와볼 것을 권한다. 풍부한 역사지식을 가진 가이드(지역 어르신들이 활동중이다.)의 안내로 여행을 풍성하게 할 수 있다는 건 아는 사람만 아는 꿀팁이다. 화려하고 웅장한 곳은 아니다. 그러나 오감과 감성까지 건드려줄 즐길거리가 풍성하다. 골목 내 서점인 우리글방 작은 액자에 이런 글귀가 적혀있다. '독서는 머리로 떠나는 여행이고 여행은 몸으로 하는 독서' 책방골목 탐방은 머리와 몸이 함께 힐링 하는 여행이다.

공정여행사 '핑크로더' 양화니 대표가 추천하는 코스

1. 지하철 중앙역 → 40계단문화테마거리(인쇄골목) → 웅두산 공원 → 국제시장 → 보수동 책방골목+공연 체험활동
 2. 지하철 자갈치역 → 국제시장, 강릉시장 → BIFF광장 → 보수동 책방골목+공연 체험활동
- 그 밖에 갈만한 곳

자갈치 부산근대역사관과 5개의 웅두산공원 진입로, 백산기념관, 영도다리, 감천문화마을 등의 명소가 가깝다. 공정여행사 핑크로더 문의 T. 051-254-2420

www.busanonna.com





- 04 인쇄골목의 벽화거리임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작품
- 05 동네 세탁소와 벽화가 묘하게 어우러진다.
- 06 40계단 '아코디언 켜는 사람'은 외국인들의 핫 포토존이다.
- 07 이색적인 소라계단을 오르면 '40계단문화원'이 나온다.



예술이 찾아와 스며든 인쇄골목

우연인지 필연인지 동광동에 인쇄골목이 형성되어 인근의 보수동 책방골목과 어우러진다. 책방골목에서 용두산공원 방향으로 10여 분 거리에 있다. 1960년대부터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는 부산의 인쇄중심지다. 한때는 인쇄 관련 업체 200여 곳이 몰려 있어 전국 최대 규모였단다.

지금도 까치원색을 비롯하여 몇몇 인쇄소는 왕성한 생산을 하고 있다. 주변 골목길은 거리갤러리 미술제의 수상작들로 벽화와 조형물로 꾸며 낙후된 거리를 예술의 거리로 바꾸었다. 벽화골목은 총 510m에 이른다.

인쇄골목과 40계단 일대는 230여 명의 예술작가들이 입주해 활동하고 있는 원도심 창작공간 '또따또가'의 주요 활동지이기도 하다. 다양한 행사들이 수시로 진행되고 있으니 문화예술 행사에 관심이 있다면 미리 일정과 장소를 알고 가는 것도 좋겠다. 현재는 '비타민C'라는 시민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진행중이다.



06



07



만남과 기다림, 우리네 삶의 흔적 40계단

비지스(BeeGees)의 홀리데이가 잔잔히 흐른다. 억수 같은 빗속에서 이용원 창문에 비친 남자는 피를 흘리며 40계단에서 쓰러진다. 영화사의 손끝은 명징면으로 〈인정사정 볼 것 없다〉의 강렬한 오프닝이다. 20세기 말미 영화지만 배경이 된 40계단은 여전하다. 잠시 비친 이용원은 지금도 운영 중이니 용기를 내어 컷트를 해 보는 것도 좋겠다. 여행은 모험이니깐!

40계단 중간에는 '아코디언 커는 사람'의 동상이 만들어져 있다. 실제 음악이 흘러 고즈넉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수많은 중국 관광객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포토존이다. '40계단문화관'에 먼저 가자. 나선형의 소라계단을 오르면 문화관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소라계단은 꽤나 이색적이다. 노란 건물과 짝을 이루고 있어 눈에 띈다. 문화관에는 피난민들과 부두노동자들을 담은 사진 등이 전시되어 있다. 전쟁의 혼란 가운데에서도 배우의 열정이 가득했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의 어릴 적 모습은 인쇄골목과 책방골목의 생명력이 되지 않았을까!

뿐만 아니다. 40계단은 헤어진 사람과 연락방법이 전무하던 시절 약속의 장소, 만남의 장소였다. 40개의 계단은 전쟁이 내뿜은 이산의 아픔을 희망으로 보듬었다. 자, 이제 우리가 잊고 지낸 그 시절을 만나기 위해 떠날 채비를 하자. 부산이 간직한 속살을 들여다보자. 그곳에는 묵직하게 가슴을 울리는 만남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

책방골목 여행의 추천 맛집



충무로

충무김밥과 크림카레우동 같은 퓨전음식이 깔끔하다. 빔프로젝트로 벽에 볼거리를 제공한다.



우진스낵

오테고 옛날도넛을 파는 분식점. 책방골목 안에서 너무도 유명한 고로케가 맛있다.



겐짱카레

일본인이 직접 운영하는 일본식 카레전문점. 다 먹고 더 주는 인심이 후하다.



카페 정.[점]

미술작가가 직접 운영하는 커피점. 보수동 최고의 뷰어를 자랑한다. 미술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건 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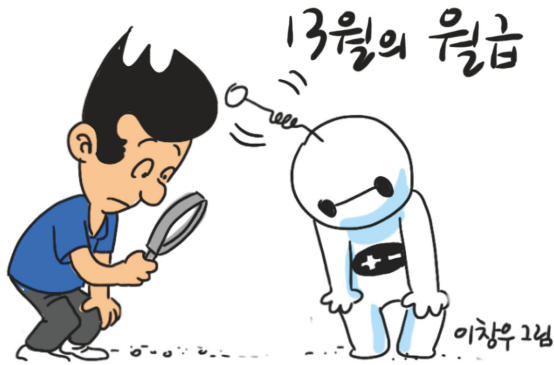
샐러드 카페 플랜에스

인조잔디와 노란 파라솔이 상큼한 샐러드와 어울려 소풍온 듯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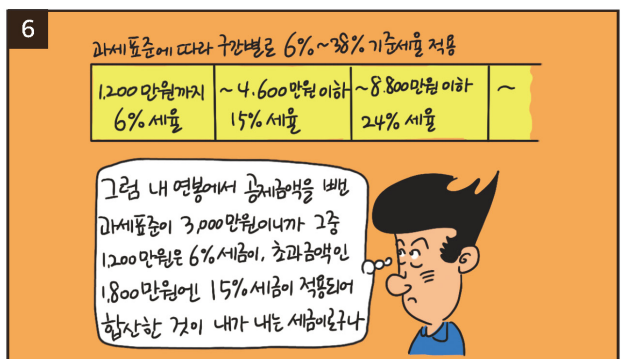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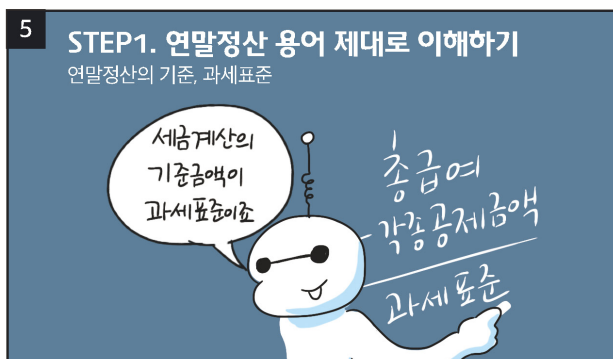
Mio 8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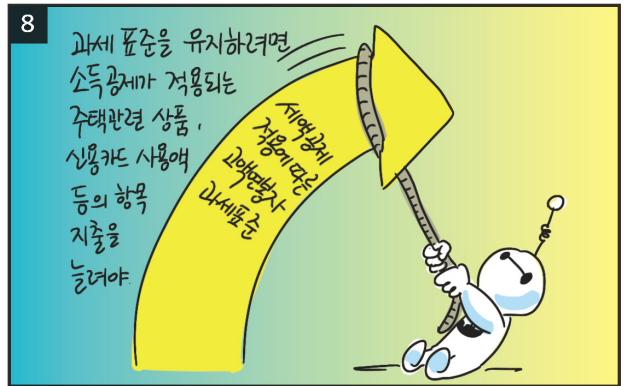
최지우가 먹고 반했다는 팔빙수가 유명하다.



연말정산, 한 푼이라도 더 받자!

해마다 연말이 되면 소득공제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연말정산만 잘 준비해도 두둑한 보너스를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2016년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할 때다.
꼼꼼하게 미리 챙겨서 알뜰하게 공제받자. 





14

꼼꼼히 안채기면 본인만 손해죠.

의료비 공제 제출서류

의료비 내역	제출서류
의료기관 약국지출	진료비 납입확인서, 처방전, 내역발급서류
안경, 콘택트 렌즈	안경사의 시력검정 결과, 발급영수증
보청기, 장애인 보조구	판매자의 사용자설명서, 발급영수증
의료용구 구입비, 약제비	처방전, 의료용구 사용 기재된 의료비 영수증

15

국민주택 규모 이하 월세에 사는 직장인이 세액공제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요거하고, 계약이체 내역요. 계약이체는 반드시 본인 명의의라야 해요

16

농치기 쉬운 것도 있겠네...

잘 찾아보세요

중소기업 청년인턴 제도

연말정산 대상 소득

연말정산 대상 소득

17

월세공제받을 자격은 아까도, 오피스텔 포함해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여야 하고, 무주택 세대주 연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주택면적 85㎡ 이하

18

연말정산 공제대상 교육비

수업료, 입학금, 등록비, 수강료, 교재비
취학전 아동 무치료,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수업료, 특별활동비
중고 교육비, 방과후학교 수업료, 특별활동비
직업능력개발 훈련 수강료 중 근로자수당 지원금 차감
재활교육을 위한 지급비용
중·고등학교의 교복 구입비용 (1인당 50만원 한도)

20

올해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했다면 남은 기간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을 늘리는 것이 연말정산 정세인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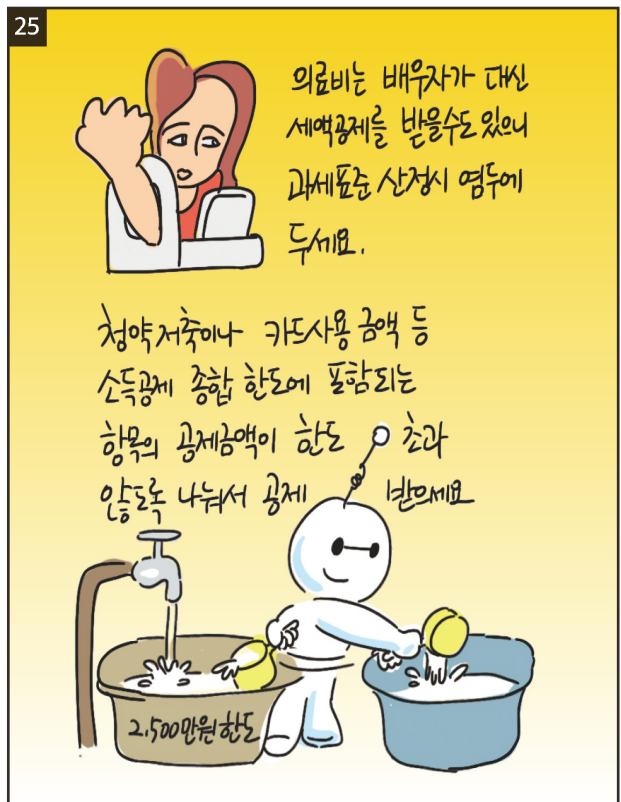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 금액은 15% 소득공제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30% 공제

19

내 연봉 5000만원에 신용카드 2250만원 썼다면 연봉 25%인 1250만원을 초과하는 1000만원에 15% 소득공제 받으면 150만원

만약 2250만원 중 1250만원은 신용카드로, 나머지 1000만원을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썼다면 30% 소득공제를 300만원! 어떤 게 유리해요



지진에서 살아남기



앗, 지진이다!

지진이 발생하면
대부분 1분 정도
땅이 강하게 흔들린다.
이럴 때 무작정 밖으로 나가면
떨어지는 낙하물이나 파편에
부상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잠시 마음을 진정시키고
지진으로 인한 흔들림이 멈춘 후
행동해야 한다.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01 집 안에 있다면

– 문이나 창문을 조금씩 열어두자.

지진의 흔들림이 심할 경우 현관문이나 창문이 찌그러져
잘 열리지 않아 실내에 갇힐 수도 있으니 흔들리고 있을
때 재빨리 열어야 한다.

– 방석이나 베개 등으로 머리를 보호하자.

주방에는 깨지기 쉬운 조리용 도구가 많아 다칠 위험이 크
고, 가스폭발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책상, 침대, 이불 아
래로 피신한다.

– 화장실로 대피하자.

콘크리트 건물 위주인 한국에서는 화장실에 대피하는 것
이 건물 내에서는 가장 안전하다. 화장실은 건물구조상 배
수관이 얹혀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다른 방보다 벽이 튼튼
하고 무엇보다 고립되었을 때 물이 있어서 버틸 수 있기
때문. 이때도 화장실 문은 열어둘 것.

– 단, 내진 설계가 돼 있지 않은 건물이라면 무너질 가능
성이 크므로 최대한 빨리 외부로 대피해야 생명을 건질 확
률이 높아진다.

02 건물 밖에 있다면

– 최대한 건물로부터 멀리 떨어져 넓은 공터로 대피한다.

아파트가 밀집된 운동장이나 1층, 지하 주차시설이 있는
건물 등의 공터는 붕괴로 매몰 위험이 있어 가지 않는 것
이 좋다.

– 여의치 않다면 큰 나무 아래로 피하자.

뿌리가 깊어 땅이 갈라지더라도 피해가 작다.





03 차 안에 있다면

– 비상등을 켜고 서서히 감속하자.

갑자기 속도를 줄이거나 속력을 올리면 충돌의 위험이 있다. 도로 우측에 정차한 후 시동을 끄고 흔들림이 멈출 때까지 기다린다.

– 키(스마트 키)는 꽂아두고 문은 열어두자.

도로의 흔들림이 심해질 경우 긴급차량 통행 시에 차량을 이동할 수 있도록 귀중품 등을 챙긴 뒤 대피한다. 연락처를 남기는 것도 잊지 말자.

–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하고 있다면

손잡이를 꼭 붙잡고, 최대한 몸을 낮게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 앉아있는 경우에는 손으로 머리를 감싸 천 뒤 허리부터 발까지 힘을 준다.

04 엘리베이터 안에 있다면

– 신속하게 내려서 계단으로 대피하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을 때 흔들림을 느끼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엘리베이터를 정지시켜야 한다.

– 만일 엘리베이터에 갇혔을 경우에는 인터폰으로 관리실에 연락해서 구조를 요청한다. 📞

비상상황을 대비한 지진 가방을 준비해보자

지진 가방에 들어갈 내용물

생수, 비상식량(레토르트), 통조림 따개, 구급약, 휴지, 물티슈, 수건, 생리용품, 여벌 옷, 장갑, 마스크, 담요, 호루라기, 현금, 적금통장, 인감, 손전등, 휴대용 라디오, 건전지, 라이터, 양초, 나이프, 신문지, 비닐봉지 등.

* 지진 가방은 현관문 옆에 배치해 두는 것이 좋다. 교환 및 교체가 필요한 내용물은 수시로 점검해 두도록 한다.

우리 집은 내진 설계가 되어 있을까?

지진이 일어나면 상하보다 좌우로 진동이 일어난다. 내진 설계는 수평진동을 견디도록 건물의 가로축을 튼튼히 만들어 건축물을 강화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건축법시행령에 따라 1988년 이후 지어진 6층 이상의 건물에 내진 설계를 적용했다.



집 코치(Application)

지진으로 인한 피해 소식이 들려오면서 국내 건축물에 대한 내진 설계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원래는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지만 자신이 살고 있는 거주지 주소를 검색하면 건물의 내진 설계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

스트레스, 맛있게 날리자

지끈지끈, 이제는 만성이 되어버린 현대인들의 스트레스.
하루하루 스트레스와 전쟁을 치르지만, 음식만 잘 골라 먹어도 스트레스를 딱딱 풀 수 있다는 사실.
성우인의 스트레스를 해소해줄 음식을 소개한다.

스트레스 쌓이는 날

스트레스를 오랫동안 방치하면 건강을 해치게 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공공연한 사실이 되었다.
뇌출혈, 뇌혈관 장애, 당뇨병, 두통, 심장질환 등의 발병률을 높이고, 위궤양, 위염, 과민성 대장 증후군, 변비, 설사 등을 유발하기도 한다.
스트레스는 교감, 부교감신경에도 영향을 주어 우울증으로 발전될 수 있다. 우울증은 불면을 비롯해 피로감, 집중력 저하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이때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는 식품을 챙겨 먹으면 피로 해소에 도움을 주고 중추신경을 자극해 우울할 때 먹으면 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다고 한다.

스트레스야, 땡~!

스트레스 해소에 좋은 7가지 음식



다크 초콜릿

초콜릿은 스트레스 해소에 특효로 소문이 난 식품이다. 과다 섭취만 하지 않는다면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을 감소시켜주고 혈압을 떨어뜨리는 데 효과가 있다. 카카오가 70% 이상이면 그 효능이 더 높다. 몸에 좋은 단일불포화지방이 들어 있는 아몬드와 함께 먹으면 더욱 좋다. 기분 전환용 아몬드 초콜릿을 추천한다.



카레

카레에 있는 커큐민은 뇌를 보호하여 스트레스에 대항하는 작용을 한다. 매운 것을 좋아한다면 고추를, 고소함을 좋아한다면 시금치를 가미하면 좋다. 고추에 들어 있는 캡사이신은 엔도르핀을 분비하게 하고, 시금치에 풍부한 마그네슘은 긴장으로 인한 두통을 완화한다.



단호박

부기를 빼는 데 탁월한 단호박은 다이어트뿐 아니라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 식이섬유 등 항산화 물질을 대량 포함하고 있어 대표 영양 간식으로 손꼽힌다. 특히 단호박에 풍부한 베타카로틴은 유해 산소를 없애주고, 포만감을 오랫동안 느끼게 한다. 아침 대용으로 죽을 끓여 섭취하면 건강과 맛을 한 번에 해결하는 데 안성맞춤이다.



견과류

견과류에는 마그네슘이 풍부하다. 급성 스트레스가 생길 때는 분비되는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특히 호두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들어 있어 우울증을 감소시키는 데 좋다.



저지방 요구르트

저지방 요구르트에 함유된 풍부한 단백질과 칼슘은 기분을 좋게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한다. 요구르트에 블랙베리, 블루베리, 크랜베리 등 베리류를 섞어 먹으면 위 질환을 일으키는 헬리코박터균이 염증을 일으키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녹차

차(茶)의 카페인은 커피의 카페인과 다르게 몸 안에 축적되지 않고, 약 6시간 후 소변으로 배설되어 해롭지 않다. 특히 녹차에는 아미노산인 GABA가 들어 있어 뇌에 안정감을 주고, 불안감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다. 또 녹차의 테아닌 성분은 성인이 긴장을 풀고 싶을 때 나타나는 뇌파인 알파파를 증가시킨다.



와인

적당한 알코올 섭취는 중추신경계 저하제 역할을 해서 혈압을 낮추고 긴장을 완화해준다. 특히 레드와인 속의 레스베라트롤 성분은 우리 몸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방어하고 회복하게 하는 기능이 있다. 🍷

여름, 잘 가! 내년에 또 만나

여러분의 여름휴가는 어땠나요? 성우가족들이 올해 떠났던 여름휴가의 추억이 담긴 사진을 보내주었습니다.
유난히 무더웠던 여름, 낭만적인 추억으로 남았을 성우가족들의 여름휴가 풍경을 들여다봅시다.
가끔 일상에 지쳐 떠나고 싶을 때마다 사진을 슬쩍 들춰보는 것도 좋겠죠?📷



조무승 과장이 중국 중경 주재원으로
떠나기 전 송별회 겸 등산

아산생산관리팀
김원희 대리, 조무승 과장,
이승호 대리, 강성욱 사원



어머, 세쌍둥이 아닌가요?
생산기술2팀 박영민 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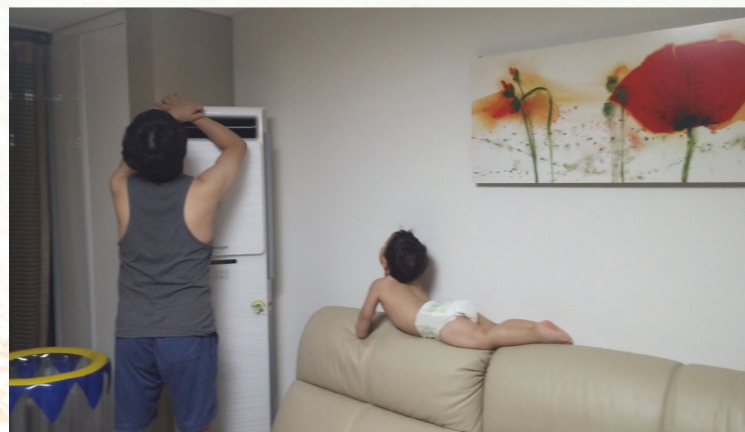
밤하늘 별 같은 우리 가족
제작1팀 박노실 과장



태국에서 부처님 따라잡기
총무팀 김민수 사원



여름엔 역시 물속
코일센타팀 김민철 부장



에어컨만 있으면 그곳이 Heaven
인사노무팀 박재우 과장



물방울이 살아있는 순간포착
생산기술2팀 송병선 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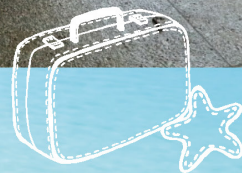
가지 한 개 따 가지?
인사노무팀 최준환 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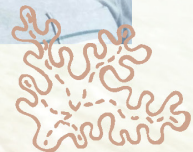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부모님 결혼 30주년 기념 여행
아산인사총무팀 서찬배 대리



알차게 즐긴 여름휴가
융합설계팀 조흥영 연구원



시원한 그늘 아래 해먹에 누워
IT지원팀 석승엽 과장



셀기꾼들
인사노무팀 차종현 차장

계곡물에 발 담그고 아들과
뽀뽀 한 번이면 더위는 물러간다
금형설계팀 최배승 과장

가로세로 낱말퀴즈

“그대를 에 머물게 한 것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그대 자신의 두려움이었기 때문이지.”

- 파울로 코엘료, <연금술사> -

힌트를 이용해 빈칸의 낱말을 모두 채운 후
노란색 칸의 글자를 이으면 나오는 정답을 맞춰주세요.

			⑤(5)											(18)
	(2)								(15)(15)					
①				(7)			(9)				(11)			
							⑩							
			⑥(6)											
		④									⑬		(16)	
(1)							⑪		(10)					
②		(3)										⑮		
				(8)			⑫							
				⑨										
		⑦						(14)(14)					(12)	
											⑰(17)			
	③		(4)				⑬(13)							
			⑧											

가로 열쇠

- ① 1977년 8월 부산직할시 동구 좌천동에서 성우금속공업사로 설립되어 축적된 기술력과 뛰어난 품질을 바탕으로 세계 초일류 회사로 도약하고자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회사.
- ② 아산성우하이텍의 前 기업명. (Hint : 사보 Vol. 1 p24~29 <성우하이텍의 어제와 오늘>)
- ③ 성우하이텍 독일WMU법인이 위치한 곳으로 철학자 훔볼트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지형학적 위치에 있는 마을 중 하나"라고 묘사한 도시. (Hint : 사보 Vol. 7 p18~19 <그녀들, 유럽의 심장을 밝다>)
- ④ 성우하이텍의 여섯 번째 해외법인으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소금의 도시라 불리는 곳. (Hint : 사보 Vol. 5 p10~17 <중국 OO성우의 힘찬 발걸음>)
- ⑤ 보이그룹 EXO의 멤버 '첸'과 너구리를 합성하여 만든 캐릭터.
- ⑥ 성우하이텍 체코법인이 위치한 곳으로 영화 <국제시장>의 탄광 장면이 촬영되었던 도시. (Hint : 사보 Vol. 7 p18~19 <그녀들, 유럽의 심장을 밝다>)
- ⑦ "간 때문이야~" CM송과 <로봇설>로 유명한 前 대한민국 국가대표 축구선수.
- ⑧ 군산의 '초원사진관'이 배경이 되었던 한석규, 심은하 주연의 영화 <8월의 00000> (Hint : 사보 Vol. 6 p30~35 <빛과 그림자>의 도시, 군산)
- ⑨ 의약품, 반도체, 세라믹, 섬유, 폭약 등에 사용되는 암석. (Hint : 사보 Vol. 9 p26~29 <나는 ■■■이다, 사진가 김홍희>)
- ⑩ 시모노 나나미의 작품으로 고대 로마의 흥망성쇠를 15권으로 담은 책.
- ⑪ 아저씨들의 개그의 줄임말. 재미없는 말장난, 언어유희, 유행에 뒤처진 개그를 의미하며, 오세득 세프를 중심으로 최근 방송에서 유행하는 트렌드.
- ⑫ 중남미에 서식하는 파종류의 일종으로 무독성의 뱀. 제니퍼 로페즈 주연의 영화로도 제작되었으며, 영화 속에서 무척 재빠르게 나오지만(사람으로 치자면 구양신공을 익힌 장무기), 실제로는 훨씬 느리고 조용하게 움직임. 운송하여 사람을 해칠 위험성은 적음.
- ⑬ <부서진 기둥(1944)>이라는 자화상을 남긴 세계 미술 역사상 손꼽히는 멕시코의 대표적인 여성화가. (Hint : 사보 Vol. 9 p6~9 <세계시장의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할 성우하이텍 멕시코법인>)
- ⑭ 1980년대 외화 <전격Z작전(원제 Knight Rider)>에 등장하는 슈퍼카 이름. 최근 미국 전기자동차(EV) 테슬라의 '모델S'를 원격 조종하는 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되어 이 슈퍼카가 재연되는 시대가 곧 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고조됨. (Hint : 사보 Vol. 8 p44~45 <SF영화 못지 않은 현실 속 자동차>)
- ⑮ 중국 베이징의 구 성내를 중심으로 산재한 골목길을 부르는 말로 '몽골어로 '작고 좁은 길'을 뜻함. 보통시민들의 생활터전으로 중국 문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는 곳. (Hint : 사보 Vol. 1 p40~41 <북경의 골목에서 부산을 만나다>)
- ⑯ 세계 4대 해전 중 하나로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이 12척(혹은 13척)의 배로 일본 수군 300여 척의 배를 격퇴한 해전. 2014년, 최민식 주연으로 영화화하여 역대 대한민국 최다 관객 수를 기록하기도 함. (Hint : 사보 Vol. 6 p22~25 <'산은 이미 준비를 마쳐있었다.'>)
- ⑰ 호주의 인디언들이 프러포즈할 때 사용하던 꽃으로 '비밀스런 사랑'이라는 꽃말을 지닌 꽃.
- ⑱ 테슬라모터스, 스페이스X, 솔라시티의 창립자이자 최고경영자 일론 Musk. 영화 <아이언맨>의 '토니 스타크'의 실제 모델이라고도 하며, 지구와 인류의 미래를 위하여 혁신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경영자로 평가되고 있음.

세로 열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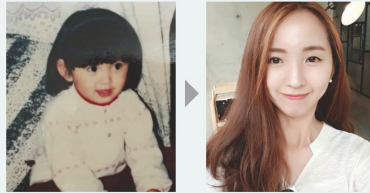
- (1) 군산에 소재한 유명 빵집. 단팥빵과 아채빵이 유명해서 아침부터 줄을 서야 한다고 소문난 빵집. (Hint : 사보 Vol. 6 p30~35 <빛과 그림자>의 도시, 군산)
- (2) 산호초 위에 새들이 썩 동으로 이루어진 새동섬으로 태평양 남쪽의 작은 섬나라 000 공화국. 눈앞에 이익에만 눈이 멀어서 30년 만에 세계 최빈국으로 전락하여 계획과 절제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준 국가. (Hint : 사보 Vol. 9 p26~29 <나는 ■■■이다, 사진가 김홍희>)
- (3) 피를 맑게 해주고 머리를 개운하게 하는 데 효능이 있으며, 뒷맛이 깔끔해 시원하게 먹으면 갈증 해소에도 효과가 탁월한 차(茶)의 이름. (Hint : 사보 Vol. 4 p44~45 <꽃잎이 수련수련 말을 건네는 시간, 꽃차의 매력에 빠져보자>)
- (4) 2016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1위(UN 세계행복보고서 발표)로 꼽혔으며, 고도의 사회보장제도가 잘 이루어진 국가.
- (5) 성우하이텍 인도법인이 위치한 벵골만의 항구도시로 마리나 해변이 유명한 도시. (Hint : 사보 Vol. 3 p16~19 <성우하이텍, 인도 000에서 최고를 꿈꾸다>)
- (6) 금형공장(舊 성우물도)의 前 기업명. (Hint : 사보 Vol. 1 p24~29 <성우하이텍의 어제와 오늘>)
- (7) 부산의 자랑, 추신수 선수가 활약하고 있는 메이저리그 야구팀 이름 <OO 레인저스>
- (8) 대형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그와 관련된 수많은 경미한 사고와 징후들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을 밝힌 법칙인 (1:29:300의 법칙) 주장자. (Hint : 사보 Vol. 6 p38~39 <습관을 조심해라, 운명이 된다>)
- (9) 성우하이텍 해외법인이 소재한 동부유럽의 국가.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서 강력한 우승후보 이탈리아를 3:2로 꺾고 16강에 진출하였음. (Hint : 사보 Vol. 7 p18~19 <그녀들, 유럽의 심장을 밝다>)
- (10) 2000년대 전체를 대표했던 대한민국 코미디 프로그램(KBS)이자 대한민국 역사상 최장수 코미디 프로그램.
- (11) 멕시코 고대 문명 중에 하나. 이 문명의 달력을 근거로 2012년 지구종말설이 한때 유행하기도 함. (Hint : 사보 Vol. 9 p6~9 <세계시장의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할 성우하이텍 멕시코법인>)
- (12) 성우하이텍의 여덟 번째 해외법인이 있는 국가. 세계에서 피라미드가 가장 많은 나라. (Hint : 사보 Vol. 9 p6~9 <세계시장의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할 성우하이텍 000법인>)
- (13) '바칼로레아'라는 대학입학자격 시험을 치르는 국가. 과목 중 철학 시험문제에 출제된 논제는 언론매체 및 사회단체들이 토론회를 열 정도로 국민적 관심사가 되며, 이 국가를 인문학 분야의 세계최고 국가로 만드는 토대가 됨.
- (14) J. 웰스터의 아동문학 소설 <OO 아저씨>.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는 사람을 의미하기도 함.
- (15) 신입사원의 회사 적응을 돕고, 3개월간 시도 때도 없이 밀착하여 사회에서 맞는 첫 단짝 혹은 첫 원수(?)를 만들어 주는 성우하이텍의 000제도. (Hint : 사보 Vol. 8 p26~29 <OO 제도가 참 좋지 않나?>)
- (16) 성우하이텍에서 2014년부터 매월 목욕봉사활동하는 장소로서 기장군에 위치한 장애우들의 보금자리. (Hint : 사보 Vol. 3 p20~25 <나눔의 기업문화>)
- (17) Perfume과 유사한 단어로 사람에게 이로운 식물의 향기 또는 이를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정유(精油) 상태로 가공한 방향(芳香) 물질.
- (18)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9월 15일 UN군 사령관 더글러스 맥아더의 주도로 시작된 상륙작전으로 2016년 이정재, 리암 니슨 주연의 영화로도 만들어짐.

Who am I 정답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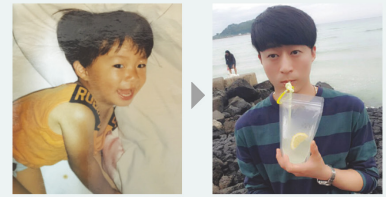
사보 9호(20-21p)에 출제되었던 퀴즈,
‘나는 누구일까요?’의 정답을 공개합니다!



② 안전환경팀 심정빈 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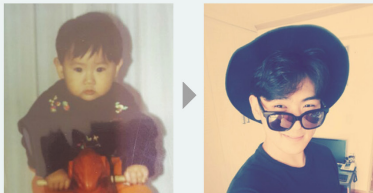
③ 개발기획팀 박은혜 사원



① 조립5반 한재성 기사



④ 밤바조립반 도정협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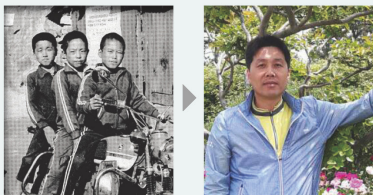
⑤ 사상반 김원영 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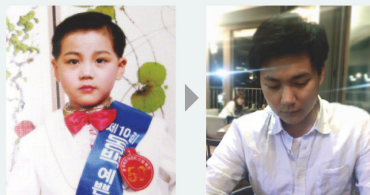
⑥ 생산관리팀 이한영 사원



⑦ 개발기획팀 이인혜 대리



⑧ 조립1반 주환성 반장



⑨ 생산관리팀 이동진 사원



⑩ 경량설계팀 박상준 연구원

가로세로 날말퀴즈 정답

정답 : 오아시스



연금술사(2001) - 파울로 코엘료

<연금술사>는 자신의 꿈을 찾아 떠나는 한 소년의 담백한 이야기를 축으로, 신비로운 체험과 심오한 생의 물음들을 던져준다.

			⑤센	구	리							⑧인
	②나	나					⑨후	통				천
①성	우	하	이	⑦텍			⑥슬	견	④마			상
	루			사			⑩로	마	인	이	아	기
				⑥오	스	트	라	바				작
			④임	성				키			③명	랑
											⑥해	진
①이			공				⑩아	재	개	그		피
③성	주	③산	업						그		③머	스
당		수	⑥하				⑩아	나	콘	다		쿨
		국	⑥인	광	석			서				
		⑦차	두	리			⑩키	트			③매	
			히					다		⑩아	카	시
	⑩한	원	④덴				⑩프	리	다	칼	로	코
		마					랑			마		
		⑩크	리	스	마	스						

40 YEARS HISTORY OF
SUNGWOO HITECH

성우하이텍의 40년 역사를 찾습니다

2017년 8월 15일이면 성우하이텍이 창립 40주년을 맞습니다.

성우하이텍은 지난 40년 동안 성우하이텍과 함께해온 여러분의 추억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성우하이텍과 함께했던 지난날을 되돌아 볼 수 있는 사료와 수기를 보내주세요.

공모기간

2016. 11. 1 ~ 2017. 4. 30 (6개월 간)

사료 부문

사진, 발간물, 기념품, 광고물, 서류 등 형태불문
역사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자료

수기 부문

성우하이텍과 얹힌 에피소드, 추억담, 일화 등

※ A4 용지 1장 내외

공모 대상

제한 없음

제출 방법

우편 : 경상남도 양산시 소주공단 3길 50

E-mail : happymhj@switech.com

T. 070-7477-6233

S-Thanks, 성우인의 행복을 부탁해

생각만 해도 입가에 열은 미소를 짓게 합니다.
기분이 좋아집니다.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위로를 받습니다.
성우인의 칭찬 애플리케이션
'S-Thanks'가 행복을 책임집니다.

우리 함께
웃어볼까요?

그녀가 웃으면!

개발1팀 신혜정 사원을 만났습니다. 성우인의 칭찬 애플리케이션 S-Thanks에서 칭찬 고득점을 획득한 신혜정 사원의 칭찬함에는 칭찬이 차곡차곡 쌓여 있습니다. 어떤 칭찬들이 쌓였는지 볼까요? '항상 밝은 얼굴', '해피', '웃음', '열정', '활기', '노력', '모범', '친절'... 모두가 긍정의 단어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입꼬리를 말아 올린 그녀의 상냥한 미소는 보는 이의 마음을 온화하게 만듭니다. 첫눈에 반하는 시간은 겨우 8.2초, 신혜정 사원이 상냥한 미소로 회사를 밝히는데 걸리는 시간은 단 1초면 충분했습니다. 그녀의 환한 미소는 분명 그녀 혼자만의 것인데도 모두에게 활기를 전해줍니다.

사실 소통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통(通)하는 마음이 바로 소통이죠. 분명 '말'이라는 편리한 도구가 있는데도 통하지 않을 때는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땐 말보다 잘 통하는 비밀병기가 있습니다. 바로 '미소'입니다. 하루하루를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 현대인들에게 미소가 힘을 발휘하는 이유는 미소야말로 어느 곳에서나 어느 시대에서나 통하는 만국공통어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행복해지는 비결이 있습니다.

마음에서 우리나라오는 미소를 입가에 얹어

일과가 시작될 때 제일 먼저 동료에게 건네보세요.

뜯어서 책갈피로 사용해 보세요.

책을 읽을 때마다 웃음이 따라 올 거예요.

**Take
a
Smile** 

**Take
a
Smile**



**Take
a
Smile**



**Take
a
Smile**



**Take
a
Smile**



빛나는 이 계절,
꼭꼭 담아두었던 마음을 활짝 열어봅니다.
풍요 속에 마주 앉은 우리.
소곤소곤, 서로의 마음을 잇는 이야기가
끝없이 펼쳐집니다.



Seochang Factory : 50, Sojugongdan 3-gil, Yangsan-si, Gyeongsangnam-do, Korea
R&D Center : 18-2, Sojugongdan 6-gil, Yangsan-si, Gyeongsangnam-do, Korea
Stamping Mould Factory : 30, Sojugongdan 7-gil, Yangsan-si, Gyeongsangnam-do, Korea
Jeonggwan Factory : 2-9, Nonggong-gil, Jeonggwan-eup, Gijang-gun, Busan, Korea
Coil Center : 151, Jangansandan-ro, Jangan-eup, Gijang-gun, Busan, Korea
Jisa Factory : 31, Gwahaksandan 1-ro, 60beon-gil, Gangseo-gu, Busan, Korea